

월간 가든인 3월호

March 2016

Gardenin

특집
기사

2016년 IPM스토리



Gardenin Maintenance

식물관리스케치 - 3월, 우리의 정원을 계획하자.

정원사의 일기 - 정원일의 아름다움과 맛...



Gardenin Plants

Special Issue -

가든인 추천, 2016년 정원식물 10 PLANT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우리집의 스타일을 살려주는 초록식물



Gardenin Design

갈럼 - 도심속에 자연의 정서까지도 연출하는

또 다른 즐거움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짝 잃은 와인 잔의 재활용

샌드아트



Gardenin Culture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3월 이야기

정원과 아이들 - 도구와 장비



바람꽃
(Anemone)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가든엔가든, 식물수집가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무지개정원

Gardenin Maintenance

- 6 식물관리스케치 - 3월, 우리의 정원을 계획하자.
- 8 정원사의 일기 - 정원일의 아름다움과 맛...
- 12 가든엔씨앗 - 파종용 토양, 발아를 위한 빛, 온도의 조건, 꽃양귀비



Gardenin Plant

- 16 Special Issue - 가든인 추천, 2016년 정원식물 10 PLANT
- 22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우리집의 스타일을 살려주는 초록식물
- 26 정원 속 보이네 - 김의털, 털머위, 털이풀, 화살나무
- 30 관목시대 - 물싸리
- 32 이명호의 야생화 - 족도리풀
- 36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왕아주가, 크로코스미아, 꽃진디 에메랄드, 무늬염주그라스, 달, 레몬밤
- 40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돌단풍



Gardenin Culture

- 42 특집 - 2016년 IPM스토리 연재 ①
- 46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3월 이야기
- 50 허브&아로마테라피 - 허브향기로 직장인들의 피로를 날려버리자
- 52 생활 속의 도시농업 - 3월 실내외 식물관리
- 56 정원과 아이들 - 도구와 장비
- 58 식물원 탐방 - 팜카밀레 농원
- 62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가든 캠퍼벨라
- 66 힐링원에 - 숲정원



Gardenin Design

- 68 칼럼 - 도심속에 자연의 정서까지도 연출하는 또 다른 즐거움
- 70 정원으로의 여행 - 정원에 쓰인 다양한 공간들
-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짝 잃은 와인 잔의 재활용 샌드아트
- 74 COLOR IN THE GARDEN - Orange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 78 정원식물 따라잡기 - 일년생, 이년생 식물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식물수집가, 가든&가든

Gardenin

Gardenin 월간 3월호

이 달의 포커스

무지개 정원

무지개정원은 넓은 면적에 일정한 구간을 나누어 색색의 꽃을 피우게 하여 시선을 확 끌어들여 주는 식재기법입니다. 소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일년초, 숙근초 모두 가능하며 되도록 장기개화하는 품종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색상을 맞추어 숙근초와 튤립을 혼성식재하면 이른 봄 튤립을 보고 이어서 숙근초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이나 각종 행사에 경관용으로 매우 좋은 조성 기법입니다.



주요수종 :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가우라베이비,
개량후룩스, 꼬리풀, 코레우리 하디시리즈, 풍점초,
버베나 보나리언시스, 튤립, 꽃백합 등

조성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식물관리 스케치

3월
우리의 정원을 계획하자

글 사진 편집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따뜻한 봄햇살과 함께 주변이 분주해진다. 우리의 정원도 동면에서 깨어난 새순들이 봄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금이 시기에 정원준비에 필요한, 하지만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 하나부터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이 있을까. 가든인과 함께 따라가보자.



꽃과 채소류 파종하기

이미 2월달에 올봄에 키울 꽃과 채소씨앗을 구매해놓은 독자들도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씨앗을 구매할 수 있다. 화분에 파종할지, 텃밭을 이용할지를 정한 뒤 자기가 원하는 꽃과 채소를 결정한다. 그리고 미리 관련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해서 재배하는 법과 특징들을 알고 키운다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정원, 화분에 심을 묘종구매

봄이면 근처의 꽃집이나 양재동 꽃시장 등에 많은 꽃들이 넘쳐 나온다. 기존의 보아왔던 꽃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품종까지 다양하다. 아마도 삭막한 겨울을 지나 맞이하는 봄이 꽃시장에서 제일 활기가 넘치는 시기일 것이다. 집에서 직접 파종해서 길러보는 것도 좋지만 빨리 정원이나 화분에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반가운 봄햇살을 뒤로하고 꽃시장으로 향해보자. 반가운 꽃미소들이 여러분을 반길 것이다.



우리의 정원에 단비같은 영양분 공급

식물도 사람과 똑같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한 식물체를 유지하면서 색깔이 좋고 큰 꽃을 피울 수 있다. 정원 식물들은 겨우내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도 새롭게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한 때이다. 봄에 싹이 나오기전에 정원의 식물주변에, 화분안에, 채소묘종에 충분히 비료를 주어 힘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원도구들을 깨끗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원도구들은 정돈도구들은 필수이다. 아마도 지난해 겨울에 깨끗이 정리하여 보관해 놓았을 것이다. 호미, 모종삽, 전정가위, 전정톱 등 다시 꺼내어서 먼지나 이물질이 있으면 닦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물로 씻거나 기름칠을 한번 더 해주는 것이 좋다. 근래에는 새로운 정원도구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어 가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고 구매하는 것도 좋다.



잡초제거

자세히 정원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잡초가 지표면에 딱 달라붙어(로제트형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이년생으로 잎이 있는 상태에서 월동하는 잡초들이다. 이들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이다. 조금만 지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확 자라기 때문이다. 모종삽이나 가위를 가지고 뿌리째 캐거나 토양층에 묻혀있는 뿌리부분을 잘라내주면 된다.



정원식물 교체

정성들여 가꾸어 오는 정원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정원식물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마음에 드는 식물이 있어 정원에 심고자 한다면 이른 봄에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아직 식물들이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교체 시 식물자체도 스트레스도 덜 받으며 활착도 빨라 기존의 식물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

다른 사람이 기르고 있거나 책에서는 보아왔지만 직접 해보지 못해본 것들이 많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베란다에서 딸기재배백을 이용하여 딸기를 길러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는 상상 아니면 상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엽채류를 길러 우리 밥상에 직접 담은 쌈채소를 올려 놓는 상상.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아니한가.



그라스류 커팅

억새, 수크령 등 그라스류는 겨울에 잎이 갈변해도 그 자체로도 경관적인 멋이 있어 인위적으로 커팅하지 않고 겨울을 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유 외에도 너무 겨울을 앞두고 바짝 자르면 봄눈이 겨울동안에 동해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제 봄이 왔으니 목은 대를 약 15~2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어 새순을 빨리 유도하고 또한 경관적으로 주변의 봄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월동 보온자재 정리

겨울동안에 보온용으로 땅에 덮어놓은 거적이나 겨울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관목 등에 덮어준 거적, 보온부직포 등을 새순이 나오기 전에 제거해준다. 겨우내 식물체에 이상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 보온자재 등은 상태를 보아서 양호한 것은 보관해 두었다가 올 겨울에 다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e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관상정원

2~3월과 같이 가지의 색깔이 돋보이는 식물들 중에서 키가 작은 나무(관목)를 다루고자 한다. 키가 작은 나무(관목)중에서는 수피가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층층나무과(Cornaceae)의 층층나무속(*Cornus* spp.) 식물을 소개하고 싶다. 국내에는 흰말채나무, 풀산딸나무, 층층나무, 산딸나무, 곶의말채나무가 있다. 말채나무의 자생식물 중에서 흰말채나무와 풀산딸나무가 관목이고 나머지는 교목에 해당한다. 도입식물까지 포함하면 대략 66종류가 들어와 있다.

사실 산딸나무는 늦봄부터 이른 여름에 아름다운 꽃에 관상 가치가 있는데, 산딸나무 꽃은 흔히 보는 꽃처럼 꽃잎이 가장자리



에 있고 수술과 암술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보면 가운데에 있는 구슬같이 생긴 것이 암술과 수술 그리고 꽃잎이 있는 꽃에 해당하고 우리가 꽃잎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엽(苞葉)에 해당한다. 포엽의 역할은 포(苞)가 의미처럼 감싼다. 무엇을 감싸느냐 하면 꽃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꽃이 피면 포엽은 떨어지고 말지만 산딸나무는 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해줄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떨어지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이 포엽 때문에 산딸나무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줄기의 색이 아름다운 식물은 대부분 관목에 해당하고 *Cornus alba*(흰말채나무), *Cornus sericea*(노랑말채나무), *Cornus sanguinea*(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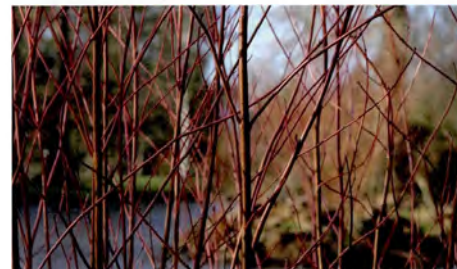
귀네아흰말채나무)가 있다.

층층나무속은 한자명으로는 산수유속(山茱萸屬)에 해당하고 관목이나 교목의 식물이다. 이 속에는 대략 45종류가 있고 알아보려고 하는 세 종류는 모두 관목에 해당하고 요즘이 보기에 좋고 가지를 보면 겨울눈이 발달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작은 가지는 둥그렇지 않고 놀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은 가지에는 털이있고 드물게 털이 없는 것도 있다. 잎자루는 약간 골이 져있다. 잎은 길쭉한 타원형이거나 타원형이고 마름모꼴 또는 달걀형으로 생겼고 털이 없는 것도 있고 털이 아주 많은 것도 있다. 꽃은 1년전 가지와 그해 자란 가지에서 생기고 산딸나무처럼 포엽이 꽃눈을 감싸는 경우도 있고 흰말채나무처럼 포엽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북반구에 분포하고 있다.

추위에 강한 편이어서 서울 이남에서 자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부분 비옥하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에서 자라고 양지나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가지가 아름다운 층층나무속 식물은 양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지의 색깔이 잘 나온다. 번식은 가을에 씨를 뿌리거나 저장해 두었다가 봄에 뿌리면 된다. 교목류의 접목은 겨울에 한다. 녹지삽을 여름에 하거나 가을에는 숙지삽을 한다. 재배하기에 쉬운 편이다. 가지의 색을 관상하는 식물은 정기적으로 전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겨울에 가지의 색을 보고 봄에 눈이 터지기 시작하면 지면에서 30~40cm 높이만 남기고 눈(삭)위에

서 바로 자른다.

겨울에 가지색을 보기에 좋은 종류로는 겨울에 밝은 적색의 수피와 단풍이 빨갛게 드는 *Cornus alba* 'Sibirica', 겨울에 어두운 자주색이나 검정색에 가깝고 자랄때의 잎이 자주색인 *Cornus alba* 'Kesselringii', 겨울의 가지색이 밝은 녹색인 *Cornus sericea* 'Flaviramea' (금노랑말채나무), 겨울의 가지색이 노랑, 주황, 빨강으로 다양하게 보여 화려한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상귀네아흰말채나무 '미드윈터 파이어')가 있다. 이 외에도 *Cornus alba* 'Aurea' (황금흰말채나무), *Cornus alba* 'Elegantissima' (흰말채나무 '엘레간티시마'), *Cornus alba* 'Kesselringii' (흰말채나무 '케셀링기'), *Cornus alba* 'Sibirica' (흰말채나무 '시비리카'), *Cornus alba* 'Spaethii' (흰말채나무 '스파에티'), *Cornus sericea* 'Hedgerows Gold' (노랑말채나무 '헤지로우스 골드'), *Cornus sericea* 'Silver And Gold' (노랑말채나무 '실버 앤 골드')가 있다. 이 식물들은 유럽의 겨울정원(Winter Garden)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물이다. 유럽의 겨울정원 중에서 가볼만한 곳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겨울정원이 있는 힐리어 정원(Hillier Gardens), 겨울정원은 없지만 세븐에이커스(Seven Acres) 안에 있는 큰 연못 주변에서 이런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영국왕립원예협회 위슬리 정원(The RHS Garden Wisley), 작지만 아름다운 겨울정원이 있는 캠브리지 식물원(Cambridge Botanic Garden) 등이 있다.



텃밭정원

3월이 되면 텃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둘 생기게 된다. 채소 중에서는 씨감자를 흙에 넣고 완두콩과 당근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다. 잠자고 있는 텃밭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작은 미생물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땅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자루에 흙을 넣고 씨감자를 넣으면 된다.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로 자루에 기울 수 있다.

감자이야기

감자는 기원전 1500년경 이전부터 잉카문명이 발생한 남아메리카 안데스의 중앙고원에서 재배되어왔다. 안데스의 중앙고원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옥수수과 감자가 주식이었다. 그러다가 1560년경 유럽의 강대국이 함대를 이끌고 남아메리카에 도착해 원주민들의 국가를 약탈하고 식민지로 만들며 돌아다닐 때 남아메리카 원주민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든 유럽인을 위해 물, 음식(감자), 약초 등을 주었다.

유럽인들은 받은 감자를 고향으로 가지고 가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유럽 농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이 감자가 처음에 유럽에 소개될 때에는 남미의 미개한 원주민이 먹던 거친 음식이라고 천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 굶주리던 아일랜드의 농민들이 주식이던 빵보다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감자를 점차 주식으로 삼게 되었다. 천대를 받던 감자는 그 이후 구황작물로 수많은 유럽 사람을 먹여 살렸으며 여전한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또 감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 감자가 주식이 된 아일랜드에서 1845년에서 1850년 사이에 발생한 감자역병으로 감자 기근이 일어나자 당시 800만 명이었던 아일랜드 인구가 650만 명으로 줄어든 정도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때 기근을 피하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 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감자가 전해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럽,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만주로 전해졌으며, 우리나라에는 1824년 만주 간도 지방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1832년 전라북도의 해안에서 영국 상선에 머물던 선교사가 씨감자를 주고 기르는 방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감자알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감자는 줄기이다. 땅 밑에서 돌아난 감자 싹이 점점 뻗어 줄기마디로부터 기는 줄기가 나오고, 기는 줄기 끝이 비대해져 덩이를 형성한다. 덩이가 된 줄기가 우리가 먹는 감자다.

감자는 텃밭에도 심지만, 여기에서는 자루에 심는 방법을 소개한다. 물이 잘 빠지는 자루에 사질 양토의 흙을 채우고 씨감자 하나를 넣으면 된다. 씨감자를 넣을 때는 감자의 눈이 아래로 가게 한다. 자루는 빛이 투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기르는 방법

과명 : 가지과 학명 : *Solanum tuberosum* L. 영명 : *Potato*
한자명 : 馬鈴薯(마령서)

재배 달력		
씨감자 심기	꽃 따주기	거두기
3월 초	5월 말-6월 초	6월 말

감자꽃이 피면 양분이 꽃으로 가기 때문에 따주는 것이 좋다. 거두기를 할 때는 거꾸로 들고 흙을 붓기만 하면된다.

감자 심는 법



감자꽃



거두기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는 감자전, 감자구이, 감자피자 간단하게는 있는 그대로 물만 부어 넣고 술에 찌서 먹어도 맛이 있다.

완두콩이야기

멘델의 유전법칙을 증명하는 데 이용된 완두콩은 원산지가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완두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B1이 풍부하다. 특히 말린 완두콩은 대두 다음으로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다. 완두콩에는 두뇌활동에 활기를 주는 비타민 B1의 함유량이 많아 정신노동자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완두는 성질이 평이하고 영양 성분이 매우 좋아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고, 기운 순환을 조절하여 몸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고 하여 예로부터 기운이 몹시 허약한 사람이나 노인들에게 보약으로 완두와 염소고기를 먹이곤 했었다. 한방에서는 완두콩이 위기능을 좋게 해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릴 때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습관성 설사에 완두를 삶아 죽을 섞어 식전에 한 잔씩 복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완두콩에는 소량의 청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40g 이상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기르는 방법

과명 : 콩과 학명 : *Pisum sativum* L. 영명 : *Pea*
한자명 : 豌豆(완두)

재배 달력			
씨앗 심기	지주대 세우기	유인하기	거두기
2월 말	4월 초	4월 초	6월 중순



완두콩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씨앗을 뿌린다. 그러나 완두콩이 자랄 때 -7℃ 이하가 되면 얼어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씨앗은 땅에 직접 뿌리는데 4-5알을

넣고 간격은 20cm로 한다. 물론 모종을 내서 심을 수도 있다. 5월 중순경도가 되면 익기시작하고 익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자주 따주어야 한다.

완두콩 지주하기



완두열매



거두기



완두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수확 후 바로 찌서 꼬투리째 입에 넣고 알만 쏙 빼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있다. 또 한수프나 전, 조림을 해서 먹을 수도 있다.

당근이야기

1.시력개선에 효과적

당근은 눈에 좋은 비타민A와 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눈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시력개선에 도움을 준다.

2.탈모개선에 효과적

당근에는 항산화성분이 풍부해서 두피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두피의 수분함유를 유지시켜줘 탈모에 방해가 좋다.

3.변비개선에 효과적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펙틴 성분이 소화불량으로 인한 더부룩함을 없애주고 배변을 도와줘서 변비에 좋다.

4.빈혈예방에 효과적

당근에는 빈혈에 좋은 철분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5.폐건강에 효과적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있는 카로틴 성분이 니코틴을 해독시켜주고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줘서 폐건강에 좋다.

6.천식에 효과적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A,비타민C 성분이 피부와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천식에도 당근의 효능이 좋다.

7.간건강에 효과적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의 세포기능을 회복시키고 노화방지도 좋으며, 특히 당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능이 뛰어나 간염치료에도 좋다.

8.다이어트에 효과적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와 함께 숙변 제거에도 도움을 주며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기르는 방법

과명 : 산형과 학명 : *Daucus carota* var. *sativa* DC
영명 : *Carrot* 한자명 : 胡蘿蔔(호라박)

재배 달력					
파종	숙아주기	거두기	파종	숙아주기	거두기
3월 초	4월 중순	6월 말	7월 중순	8월 말	10월 말

당근의 원산지는 유럽, 서남아시아이다. 당근은 뿌리채소로 물빠짐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란다. 땅에 골을 타고 물을 준 다음 씨앗을 직접 뿌리면 된다. 씨앗이 나고 10cm 정도 자라면 8-10cm 간격으로 숙아주기를 한다. 또한 당근은 일년내 봄, 가을로 두 번 재배할 수 있다. 당근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수프, 전을 해서 먹을 수 있다. 물론 수확 후 바로, 씻어서 생으로 한 입 물어 먹어도 맛이 있다.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씨앗을 파종하기 위한 토양

씨앗을 파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양은 상토이다. 상토는 코코피트, 초탄(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와 약간의 비료를 인공적으로 미리 섞어놓은 토양이다. 상토는 대부분의 원예용품점이 나 지역 농약사에서 구할 수 있다. 상토는 무균의 토양으로 씨앗을 파종할 때 상토를 사용하게 되면 고사병이나 진균성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만약 자신이 만든 고유 토양 개량제를 쓰고자 한다면 같은 양의 초탄(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을 섞어서 사용하길 권한다. 어떤 재배기는 토양개량제를 혼합하는데 화단의 토양을 섞기도 하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다. 대부분의 토양은 무거워서 씨가 자라는데 필요한 공기가 들어올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또한 씨앗을 뿌리기 전에 소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씨앗 육묘용 토양의 조건

- ▶ 가볍고 씨앗에 충분한 호흡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 물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습도는 씨가 자라는데 필수적이다.
- ▶ 무균 상태여야 한다. 그래야 어린 묘종이 곰팡이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영양이 높아서는 안된다. 씨는 토양에서 오직 습기, 공기, 온기만을 가져가고 배유나 떡잎에서 영양분을 얻는다.



상토는 육묘하기에 적절하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인공적으로 섞어놓은 토양이다.

GardenIn TIP

>>기본적인 토양 개량제(mix) 재료

코코피트(Cocopeat)

코코넛 껍질을 잘게 분쇄하여 나오는 코코넛부산물로 경량성, 보습력, 보비력이 우수하고 요즘 나오는 원예용 상토는 코코피트가 70% 이상 함유되어 있다.

초탄(Peat moss)

이끼나 갈대가 땅속에 침해되어 어느 정도의 압력과 열을 받아 생성되는 물질로 기본적으로 살균력이 있고 무게가 가볍고 자신



의 10배이상의 수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초탄은 고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막는 천연물질을 가지고 있다.

펄라이트(perlite)

진주암을 고온 처리하여 만든 미세한 다공질의 인조토로 가볍고 보수력이 있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매우 가벼워 식물지탱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흙을 함께 넣어주어야 한다. 소독된 토양이라 병균이 없다. 비료는 따로 넣어줘야 한다.

질석(Vermicul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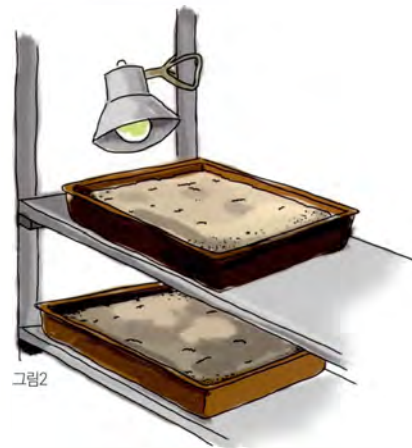
보습에 좋고 다공질이라 가볍다. 입자가 굵은 것과 가는 것이 있다. 질석을 가공하여 생산한 중성 인조토로 토양개량에 많이 쓰이고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압력을 받으면 기능을 상실한다. 질석은 수분과 영양분을 유지시키면서 토양을 가볍게 해준다.



2. 발아를 위한 빛의 조건

일부 씨앗들은 발아를 위해 빛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일부 씨앗들은 어두운 상태에서 발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씨이 난 후에는 즉시 묘종을 빛이 충분한 곳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식물은 인공적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약해지거나 줄기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형광등 장치를 해주면 된다(그림1).

형광등 빛은 햇빛에 가장 가까운 자연적인 색깔 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옅은 분홍색의 형광등 전구가 가장 좋다. 자라는 식물들의 광합성을 위한 알맞는 빛의 스펙트럼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형광등 전구가 필요하다.



3. 발아를 위한 온도 조건

15도에서 24도정도의 온도에서 대부분의 씨앗은 1~2주일내에 발아를 한다. 대부분의 일년생이나 채소들은 22도 정도가 발아에 적합하다. 다년생 식물들은 약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발아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발아가 되기 위한 온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 씨앗이 발아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열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탈착식 램프를 이용해 일반적인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알루미늄의 탈착식 램프를 씨앗 파종용기 선행 근처에 부착한다. 하나의 램프는 씨앗 용기 두 개정도에 필요한 모든 열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2). 만약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면 신문과 같이 불투명한 것을 묘종이 나오기 전까지 용기에 씌워 두면 된다. 램프는 발아할 때 까지 하루 24시간은 유지시켜 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열 패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가열패드는 씨앗보다는 껍질이 순이나 목목에 더 유용한데 씨앗 파종용기에 비해 너무 작고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열선도 이용할 수 있고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같이 두어야 한다.

GardenIn TIP

- ▶ 씨앗들이 발아하기 직전까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 ▶ 일반적인 백열등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형광등이 묘종에게 좋다.
- ▶ 묘종은 빛으로부터 15cm이상 떨어져 있어야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 ▶ 대부분의 묘종은 동일한 시간의 빛과 어둠에 노출되어야 잘 자랄 수 있다. 한번에 12시간의 빛이 비추게끔 타이머를 맞춰 놓는다.

4. 꽃양귀비(Poppy)

양귀비는 곤충에 의한 타가수분 식물이다. 타가 수분이 일어날 때 흙꽃들은 유전적으로 겹꽃에 비해 우성이지만 색깔은 예측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7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관상용으로 잉글랜드양귀비, 아이슬란드양귀비, 캘리포니아양귀비를 이용한다. 꽃이 매우 아름다워 분화용, 축제용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



트레이에 육묘되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양귀비



이식이 가능한 상태의 묘종



아이슬란드양귀비



잉글랜드양귀비



캘리포니아양귀비

GardenIn TIP

- ▶ 잉글랜드양귀비(*Rhoeas*), 아이슬란드양귀비(*Rnudicaule*)는 보통 2년생 식물로 취급된다.
- ▶ 오리엔탈양귀비(*Porientale*)는 다년생 식물로 취급된다.

꽃양귀비 씨앗 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온도 : 16~22도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후 7일~10일
- 식재간격 : 왜성종(15~20cm)/고성종(20~30cm)
- 씨앗 보관 : 파종후 흙을 덮지 말고 토양표면을 가볍게 눌러준다.

수확하기

씨앗이 흩어지기 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꽃봉오리가 말랐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꽃의 줄기를 잘라낸다. 그리고 얇은 상자에 넣어 건조한 장소에 둔다. 그것들은 계속 마르기 때문에 흔들면 쉽게 씨앗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야외 파종

꽃양귀비는 씨앗을 이용하여 효과를 내기 쉬운 식물이다. 꽃양귀비는 이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초봄이나 늦가을에 야외에서 바로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씨앗은 매우 작다. 그래서 파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미세한 입자의 건조한 모래와 섞어서 파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내 육묘

발아가 가능한 온도의 실내에서는 2월중순경에 파종하여 3월중순이후(마지막 봄서리가 지난 후) 정원으로 옮겨 심으며 아주 잘 자란다. 서서히 찬 기온에서 튼튼하게 만들면 야외에서 적응하는 것이 수월해 질 것이다.

GardenIn TIP

- ▶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지정된 2종(*P. somniferum* / *P. setigerum*)의 예는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 ▶ 양귀비는 서늘한 온도를 선호한다. 그래서 가을이나 초봄에 파종해야 발아가 되고 5월말에서 6월초부터 꽃을 볼 수 있다.



꽃양귀비의 종류



아이슬란드양귀비



오리엔탈양귀비



잉글랜드양귀비 혼합



잉글랜드양귀비 레드



캘리포니아양귀비 오렌지



잉글랜드양귀비 퍼플



캘리포니아양귀비 화이트



취눈양귀비

천상의 아름다움

꽃양귀비

지금 파종하세요!!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 0328

Special Issue

가든인 추천

2016년, 정원식물
10 PLANT

정원을 새롭게 빛내줄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
올해는 우리의 정원에 어떤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까.
무엇을 골라야할지 고민중인 독자들에게 가든인에서는
올해 여러분의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정원식물
10종류를 엄선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도 최고의 선택이 될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해본다.

글 사진 편집실

R 국내에서 자체개발하여 선보이는 품종보호 상품종입니다.

1

 2016년, 새로운 품종을 선보입니다
코레우리 *Coreuri*
링시리즈 *Ring*

꽃의 중앙에 꽃무늬가 링을 이루고 있고 식물의 형태가 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든링



|루비링



|애플링



|옐로우링



|살몬링



파크시리즈

내한성이 강하고 해안색부터 오렌지색까지 다양한 화색을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사람이 빠르고 꽃이 만개하면 고르스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화이트파크



|오렌지 파크



|아이보리파크



|레몬파크



글로브시리즈

식물의 형태가 반구형과 구형의 중근토입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고 화색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브론즈글로브



|크림글로브



|오렌지글로브



|핑크글로브



스타시리즈

식물의 형태가 컴팩트하고 꽃수가 많아 정원용 뿐만 아니라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입니다.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박스트리

식물형태가 계란형으로 꽃이 피기전에 식물의 형태가 체인으로도 관찰이되기 위한 품종입니다. 꽃은 직지한 잎속에서 몽실몽실 피어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2 초형이 컴팩트한 별꽃패랭이 패랭이 스타시리즈

봄부터 가을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꽃을 계속피웁니다.
건조에 매우 강하고 상록성으로 우리나라의 정원에 안성맞춤인 패랭이입니다.



화이트스타



미니스타

4 봄부터 가을까지 꽃방석 하늘국화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정원식물입니다.
꽃수가 많고 지피력이 뛰어나 앞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어 행복한 정원을 연출합니다.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강렬한 황금빛
금방석



꽃이 작고 조밀한 매트형
블루



순백의 아름다운 꽃방석
빅화이트



3 행복, 행운, 사랑의 클로버 클로버 초콜릿 행복

잎이 흑갈색으로 세잎(행복), 네잎(행운), 다섯잎(사랑)이
같이 나오는 재미있는 품종입니다.

생육이 강건하고 잔디대용으로 좋고 색깔이 좋아 문양을
연출할 때 좋습니다.



5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시원함 당매자나무 레드로켓

직립성의 소재로 적색을 띄는 잎의 색깔이 뛰어납니다.
암석가든, 띠녹지, 돌메지용으로 좋은 소재입니다.



6 새로운 나비꽃이 정원으로 날아옵니다. 가우라

장기개화 정원식물중에서 최고의 자랑거리 가우라. 새로운 품종들이
올해에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반중매가 시원하게 드와
웨딩마치



단정한 좌안미본
화이트리본



아름다운 좌안미본
핑크리본



원적에 솟아오르는 올빼미
드래곤



황금색꽃이 시원하다
골든엠티



황금색꽃이 시원하다
고추잠자리



7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로 다가옵니다. 초콜릿코스모스

적갈색의 강렬한 코스모스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웁니다.
꽃에서 초콜릿향이 가득한 매력적인 코스모스입니다.



9 키작은 호피억새 억새 핑의깃햇살

키가 작은 왜성종 억새로 잎의 호피무늬가 햇살처럼 밝고 아름답습니다.
기존의 유사품종들이 여름에 생육이 매우 약한 반면 여름에도 생육이 매우
강건한 신품종 억새입니다.



10 시원한 대형의 꽃무리 부처꽃탑

일반 부처꽃에 비해 꽃이 크게 피고 더욱더 화려합니다.
수변식을 뿐만아니라 일반 정원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8 봄부터 여름까지 황금색,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 인동해오름

색감이 좋아 덩굴식물 뿐만 아니라 지피식물로도 좋습니다.
약간의 반음지에서 색상의 발현이 더욱 좋습니다.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구분	규격	*부가세 별도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우리집의 스타일을
살려주는 초록식물

외국 인테리어 사진 속의 단골 식물들

이번 주인공은 외국 인테리어 사진에 단골 소품으로 등장하는 초록 식물'아랍니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는 녀석들이지요.

포토제닉한 초록이들을 만나보실까요?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슈거바인(Sugarvine)

어린 아이의 다섯 손가락을 좌악~ 펼친 것 같은 귀여운 잎들이 줄기에 붙어 긴 덩굴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초록친구랍니다.



어떤 화분에 심어 놓아도 집안 가득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요. 일본 가드닝 사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식물이에요. 꽃시장에서 '독일 아이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슈거바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잘 키우려면

1. 햇빛: 밝은 음지가 좋아요.
2. 물주기: 화분의 흙이 모두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잎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면서 자꾸만 떨어진다고요?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그래요. 흙을 건조하게 관리하세요.
3. 번식 방법: 위술이 방법으로 하세요.



'물렌베키아(Muehlenbeckia)

국인 화초라고 불려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지요. 어느 장소에서 놓아도 잘 어울리고 드라마틱한 멋이 있어요. 뽀뽀뽀 찰사 같은 느낌 때문인지 영어 이름은 'Wire Plant' 또는 'Wire Vine'이라고 한답니다. 시중에서는 '트리인'이라는 이름으로 통해요.

잘 키우려면

1. 햇빛: 한여름의 직박달만 아니라면 햇빛이 비치는 곳도 좋고 밝은 음지도 좋아요. 실내에서만 키우는 화초로 알고 있는데 실외에서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 줄기가 아주 탄실해지고 예쁜 꽃도 피운답니다.
2. 물주기: 화분의 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3. 번식 방법: 포기 나누기로 하세요.



'필레아 글라우카(Pilea Glauca)

올망졸망 작은 잎, 이국적인 느낌의 독특한 색깔. 시중에서는 '타라'라는 이름으로 통해요. '물렌베키아'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르답니다. 화단이 있는 집이라면 화단의 흙에 심어보세요. 천천히 퍼지면서 화단의 흙을 덮은 모습은 숨이 골락 넘어갈 만큼 환상적이거든요.

잘 키우려면

1. 햇빛: 밝은 음지가 좋아요.
2. 물주기: 화분의 흙이 모두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잎이 후두둑거리면서 떨어지는 이유는 과습 때문이에요. 조금 건조하게 관리하세요.
3. 번식 방법: 삽목법으로 하세요.





'아디언텀(Adiantum)'

파르르 ~~~ 속눈썹이 떨려오듯 아스라한 분위기 ~ 작은 나비의 날개 같은 얇은 이파리들 ~ 낭창낭창 하늘거리는 모습이 압권인 초록이.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들이지만 화초 키우기 초보자가 기르기엔 좀 까다로운 녀석. 물주기를 잘못했다가는 금세 잎이 꼬불거리며 바삭 말라버리는 복수극을 펼친답니다

잘 키우려면

1. 햇빛 : 강한 빛을 피한 밝은 음지가 좋아요. 빛이 모자라는 곳에 두면 잎의 예쁜 빛깔을 포기하셔야 해요.
2. 물주기 :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물을 거르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주면 잎이 말라버려요.
3. 번식 방법 : 포기 나누기로 하세요.



'푸밀라 고무나무(Ficus Pumila)'

가장자리를 따라 흰색 무늬가 새겨진 작고 얇은 잎. 줄기를 뿔어 길게 자라는 모양이 담쟁이 같은 느낌입니다. 줄기가 길게 자라는 이 녀석은 늘어뜨려 키우는 것도 좋지만 벽이나 나무 같은데 붙어서 위로 올라가며 키우는 게 재밌어요. 사실 이 녀석은 바위나 벽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 식물이기도요. 저는요, 이 담에 마당 있는 집에 살게 되면 온실을 만들고 한쪽 벽 전체를 푸밀라로 덮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이루어질까요?

잘 키우려면

1. 햇빛 : 밝은 음지가 좋아요. 무늬 종의 경우, 잎의 무늬가 사라지면 햇빛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2. 물주기 :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3. 번식 방법 : 삽목법으로 하세요.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상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쭉~~쭉!!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텅커벨시리즈

아니 할~수, 할~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물관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뭐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든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서로 다른 듯 같은 나무

화살나무 속 (Genus Euonymus)

화살나무 속은 얼핏 보기에 다른 식물인 듯 보이는 대략 175종의 낙엽성, 반상록성, 상록성의 관목, 교목, 덩굴식물을 포함하는 속으로 형태적으로는 매우 헛갈린다. 다만 그 열매를 보면 '야, 이래서 같은 속이구나' 하며 느낄 수 있다.

대부분 삼림지와 잡목림에 서식하고 주로 아시아에 분포한다. 주로 상록의 잎을 관상하는 사철나무와 가을의 단풍과 출기를 관상하는 화살나무를 대표종으로 하여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된다. 흔히 열매는 이랑이 있고 날개가 달리거나 열편에 구형, 또는 거의 구형이다. 화려한 가뭇피가 있으며 갈라지면서 종자가 노출된다. 열매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결실한다. 잎은 대생에(드물게 호생), 단순하며 모양이 다양하고, 거치가 있거나 부채꼴이다. 사철나무의 경우는 주로 상록의 울타리용 또는 교목아래를 피복하는 피복식물 혹은 덩굴을 기어오르는 등반식물로 재배되는데 주요 관상 포인트는 상록의 잎과 열매이다.

화살나무의 경우 관목 정원에서부터 포인트 식재로, 그리고 울타리에서 지표 식재로 사용한다. 모든 부분이 먹을 경우, 약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화살나무, 회잎나무 등의 어린잎은 나물로도 한다.

내한성이 뛰어나며 결빙에 내성이 있다. 햇빛이 충분한 비추거나 약하게 그늘이 진 곳,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키운다. 만약 충분한 일광에서 키운다면, 더 축축한 토양을 필요로 하지만 낙엽성의 재배종은 마른 토양에 내성이 더 강하다. 사철의 경우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여러 색의 재배종은 잎의 다양한 색의 발현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광을 필요로 한다.

종자는 익자마자 병상에 있는 용기에 뿌린다. 낙엽성의 재배종은 녹색의 가지를 삼목하고, 상록수는 한 여름에 정미기에 삼목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모충, 덩굴식물 바구미, 가루원공팡이의 발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깍지벌레 및 진디는 상록성의 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겨울이 필요한 상록의 국화

털머위 속 (Genus Farfugium)

지하경을 갖는 상록성 다년생 식물의 2종의 속으로 동아시아 개울가 근처나 해안가에서 발견되며 잎을 보기 위해 길러진다. 주로 큰 잎은 반짝이는 혁질의 표면에 뒷면에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잎은 로제트 형의 잎자루에서 나오며 가을에 노란 꽃을 피운다.

다양한 재배종들은 잎을 관상하기 위한 품종들이 많이 개발 되어 있다. 주로 물가나 화단의 경계부 혹은 화분용으로 길러지고 제주도의 경우 도로가의 돌 틈이나 물이 흐르는 개울 주변에 많이 심어 관상한다. 서리에 대한 내한성은 있으나 온도에는 약해 전주의남으로만 재배가능하고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을 위해 온실에서 재배하거나 보온이 필요하다.

비옥하고 축축하며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이 좋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추위와 건조한 바람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

겨울이나 봄에 모판에 파종을 하면 발아는 잘된다. 다양한 품종과 야생종을 봄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에 의한 피해가 있다.





파랑색 상록의 즐거움

김의털 속(*Genus Festuca*)

간혹 군생을 하며 낙엽성 혹은 상록성의 지하경을 갖는 다년생 초본의 300~400 여 종의 속으로 초지, 삼림지의 가장자리 그리고 온대지역 전역의 개울가 가장자리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은 양잔디로 불리며 재배되고 나머지는 흔히 잡초라 불리는 식물로 몇 종만이 매우적인 꽃을 가지고 있거나 나머지는 대개 청록색이나 청회색의 잎을 보기 위해 재배된다.

백백하거나 성글고 납작하고 갈색 빛이 도는 녹색, 때론 연한 청록색의 작은 수상화의 가지 친 원추 꽃차례가 봄에서 여름까지 나온다. 잎이 파란색을 가진 파란김의털을 다른 고산 식물과의 잎의 대비를 이루기 위해 화단의 가장자리나 돌로 된 화단 등에서 기른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다. 햇빛이 잘 드는 황량한 토지에서 적절히 비옥하고, 건조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2~3년마다 잎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를 하고 재이식을 해준다. 증식은 가을부터 봄까지 모판이나 트레이에 파종을 한다. 봄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으나 개화 후 청마이후 일시적인 고사를 보인다.



복슬복슬한 털복숭이

털이풀 속(*Genus Filipendula*)

지하경을 갖는 다년생 식물로 10종 혹은 그 이상의 속이다. 건조하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백악질의 초지에서 번식하는 *F. vulgaris*를 제외하면 북반구의 개울가, 물기가 있는 도랑 등과 같은 축축한 서식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고 복슬복슬하고 빨강, 분홍 혹은 흰색의 꽃이 늦봄에서 늦여름까지 피는데 잎 위의 하나의 혹은 가지가 친 줄기에 주로 밀집하여 취산 꽃차례처럼 생긴 산방꽃차례로 나온다. 대부분의 종은 삼림지의 정원에 적합하거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도 적합하다. *F. vulgaris*는 가장자리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도 자란다. 내한성이 뛰어나 적절히 비옥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축축하지만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 햇빛이 잘 들거나 반그늘지역에서 기른다. *F. rubra*, *F. ulmaria*는 눈지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다. 증식은 모판에 가을에 파종을 하거나 봄에 기온이 10~13°C일 때 한다. 가을이나 봄에 분주를 한다. 뿌리를 잘라주고, 늦겨울에서 초봄까지 종자 트레이에 수평으로 심어준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잎반점병에 의한 피해가 있다. 특히 *F. ulmaria* 'FlorePleno'의 경우 영양이 부족하거나 건조한 경우 흰가루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목
시대

새로운 관목의 형태, 옹벽이나 암석사이 식물로도 좋은 물싸리(Potentilla)

이번호에서는 암석가든, 석축메지용 뿐만아니라 정원용으로도 좋으며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화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물싸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는 원래 중부이북의 북부 지방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물싸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 식물인지 착각하게 되는데 원래는 약간 건조한 사질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북부 고산의 바위주변이나 햇빛이 좋은 계곡 주변의 건조한 모래땅에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심겨지는데 관목으로 군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혼합식재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암석가든에도 자주 쓰여진다.



꽃색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들사이 식물로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뿌리가 강하고 깊게 뻗는 성질은 물론 잔뿌리의 발생도 좋아 작은 공간 혹은 깊게 뿌리가 들어가야 권근이 형성되는 암석사이 식물(메지식물

이라고 주로 표현함)로 아주 좋은 소재이다.

우리의 야생 물싸리는 둥근형의 직립형태로 주로 1.5m까지 자라는 특성이 있어 큰 바위로 석축을 쌓아 올린 곳은 좋으나 4-6목 되는 바위석축에는 좀 큰 느낌의 식물이다. 물싸리 종류중 왜성으로 약간 누

어서 자라며 절간이 짧고 조밀한 노랑색의 물싸리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은 일반종에 비해 왜성으로 꽃이 다화성이며 3계절 꽃을 피워 매우 훌륭한데 최근에 들어 암석사이 식물로도 인기가 높으며 4-6목 되는 바위석축에도 알맞다. 또 이와 유사하지만 꽃색에 따라서 연분홍, 하얀색, 오렌지색, 붉은색, 노랑, 연노랑색 등 다양한 품종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물싸리의 *Potentilla*속 식물의 우리나라 대표종은 양지꽃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다년생 초본이며 좀양지, 좀딸기, 눈양지, 제주양지, 딱지꽃 등 최소 17종이상이 생육하고 있는 매우 큰 속이며 대부분 양지,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이들은 생육이 강건하고 포기별 음이 좋아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종류이다. 사실 양지꽃이나 제주 좀양지 같은 경우 이른 봄 피어나고 포기 별음이 좋아 육성만 잘 한다면 행잉용식물로도 전망이 밝다 하겠다. 이들의 특성에서도 나타나듯 초원지에서 되도록 햇빛을 잘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잘 자

란다.

석축의 암석사이식물로
효과적이고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도 매우 잘 맞는

물싸리종류를 다양화하여 석축의 암석사이 식물로 잘 적용하면 효과적이고 단순한 조경식재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좋으나 생육이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도 매우 잘 맞는 소재로 손색이 없다. 퇴비는 너무 풍부하면 웃자라고 또 조밀한 품종들은 잎, 줄기가 장마철에 녹아 내릴 수도 있어 주의를 해준다.

물싸리 품종



뉴크



데이튼



뉴톤



라임라이트



레드로빈



에벳우드



화이트



오렌지

상록의 관목이 물려옵니다

Juniperus (향나무류)

- 잎의 질감이 뛰어납니다.
- 상록으로 겨울가든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 암석가든, 도심피복지, 아파트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전천후 관목입니다.



골드스타형



골드키스형



블루키스형



블루메로우형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한국의 전통 혼례를 연상케 하는 족도리풀



족도리풀이라는 이름

한국 전통 방식으로 혼례를 치를 때 신부의 머리 위에 쓰는 족두리를 닮은 꽃이라고 하여 족도리 또는 족도리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식물이 있다.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족도리풀을 족두리풀로 고쳐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식물의 이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정해져서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함부로 고쳐써서는 안 된다.

족도리풀의 생태 특징

꽃이 낙엽 속에 묻혀있거나 땅에 바짝 붙어서 피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꽃을 잘 확인할 수가 없다. 더구나 모양이나 향기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벌과 나비에 의한 수분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다. 땅위를 걸어 다니거나 똥이나 쉰은 물질을 좋아하는 버섯파리류가 꽃에 다가와서 수분을 시켜주거나 땅속을 기어 다니는 개미나 지렁이들에 의해 수분이 된다고 하는 정말 특이한 생태 특징을 지닌 꽃이다.

생태계의 조화

이른 봄에 부화되어 날아다니는 나비 종류들 중에서 '애호랑나비'라고 하는 희귀한 곤충은 유생 때 족도리풀의 잎을 먹고 자라서 나비가 되는데 족도리풀과 인연이 깊은 참 재미있는 곤충이다. 애호



각시족도리



개족도리

랑나비의 암컷은 애벌레가 자라서 우화(羽化)될 때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적당한 양의 알을 잎 뒷면에 낳는다. 매운맛이 강한 족도리풀의 방어물질에 적응을 한 애호랑나비의 생존전략은 실로 놀랍기만 하다. 족도리풀은 애호랑나비에게 알을 낳도록 잎을 허락해주고 꽃은 파리 같은 중매자에게 부탁하여 수분을 하며 씨앗은 개미에게 내주니 전략이 기가 막히다. 몸의 크기가 호랑나비보다 작아 애호랑나비라고 부르기도 다른 나비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이른 봄에 먼저 나와서 활동을 하니 '이른 봄애호랑나비'라고도 부른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

족도리풀의 잎 뒷면에 붙은 애호랑나비의 알은 마치 보석을 연상케 한다. 방울방울 푸른빛의 옥구슬처럼 생겼는데 알에서 부화된 후 징그럽게 생긴 애벌레들은 잎 뒷면에 붙어서 잎을 다 갉아먹으면 애호랑나비로 우화된다. 쥐방울덩굴류에는 족도리풀 종류들 외에 쥐방울덩굴과 등침이 있는데 이들의 꽃도 제법 특이하고 예쁜 편이다. 잎은 사향제비나비 애벌레의 먹이로 공급이 되는데 그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무척 흥미롭다. 사향제비나비의 애벌레도 애호랑나비 못지않을 정도로 무섭게 생겼다. 이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자연의 오묘함 속에 잠시 빠져보기도 하자! 자연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족도리풀의 특징

전국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또는 양지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15~20cm이고, 잎은 심장 모양이고 나비 5~10cm이다. 자못빛을 띠는 줄기 끝에서 잎은 보통 2장이 나며 긴 잎자루가 있다. 표면은 녹색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뒷면 맥 위에 잔털이 있다. 뿌리줄기는 마디가 많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며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족도리풀의 꽃과 열매

꽃은 4월에 피고 잎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서 끝에 1개의 꽃이 잎을 향하여 달린다. 꽃은 끝이 3개로 갈라져서 다소 뒤로 젖혀진다.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꽃이 잎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잎 주변에 쌓인 낙엽을 들어내면 속에 꽃이 숨어 있다. 지면에 거의 붙어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자루는 처음에 짧고 휘어있으나 나중에 3~4cm까지 차츰 길게 자라면서 곧게 서며 화피는 보통 변두리가 검붉은 자갈색으로 된 녹색이거나 드물게는 녹색 또는 자갈색이다. 수술은 12개이고 암술대는 6개이며 밑은 맞붙었고 윗부분은 좀 떨어져 있다. 암술머리는 유두 모양으로 둥글다. 씨방은 3갈래이며 둥근 기둥 모양이다. 열매는 8~9월에 결실하며 장과(漿果)이고 끝에 꽃받침 잎이 달려 있다. 종자는 길이 3~3.5mm, 폭 1.2~1.7mm이며, 표면에 윤기가 있다.

족도리풀 무리의 상세 구별

대개는 한 포기에 꽃이 한두 개 정도 달린 것에 비하여 깊은 산속에서 여러 해 동안 제대로 자란 것은 포기나 다발로 퍼져 자라서 꽃이 무더기로 핀 모습을 볼 수 있다. 종류도 제법 다양해서 기본종인 족도리풀(*Asarum*



금오족도리



동족도리



무늬족도리



민무늬족도리



등회

sieboldii Mig.) 외에도 잎 표면에 회색한 무늬가 많으면서 잎이 두껍고 털이 많은 개족도리(*Asarum maculatum* Nakai), 잎과 꽃의 표면에 흰색 반점무늬가 많은 무늬족도리(*Asarum sieboldii* var. *versicolor* Yamaki), 꽃에만 반점 무늬가 있는 민무늬족도리(*Asarum versicolor* var. *non-versicolor* Y.N.Lee), 꽃이 작고 꽃잎이 뒤로 발박 자빠지는 각시족도리(*Asarum glabrata* (C.S.Yook & J.G.Kim) B.U.Oh), 꽃잎이 길어서 옆으로 길고 넓게 펼쳐지면서 잎에 무늬가 없는 금오족도리(*Asarum patens* B.U.Oh), 전체적인 특징은 금오족도리와 같지만 꽃잎이 맑은 황록색을 띠는 황록선운족도리(*Asarum somunense* Y. Lee var. *viriduleolum* Y. Lee), 꽃은 작지만 앞부분의 꽃잎이 길게 뻗어서 끝만 뾰족하게 튀어나와 꼬부라진 뿔족도리(*Asarum sieboldii* Mig. f. *cornutum* (Y.N.Lee) M.Kim & S.So.), 잎이 자주색인 자주족도리(*Asarum Koreanum* (J.Kim & C. Yook) B.U.Oh. & J.K.Kim) 등 제법 다양한 족도리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일반 족도리품의 꽃색이 밝은 녹색으로 변해 있는 특이한 모습도 간혹 발견이 된다.

족도리품의 전설

경기도 포천 지방에 아주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고 하여 '꽃아가씨'라 불렸다. 꽃아가씨는 산나물을 캐고 꽃나물을 심으며 생활했는데 궁녀로 뽑혀가 시집도 못가고 궁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말았다. 머나먼 중국 땅으로 팔려가 들만에 굴러다니는 풀과 같은 인생을 겪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도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녀가 죽은 뒤 그 집 뒷마당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풀의 꽃은 마치 처녀가 시집갈 때 쓰는 족두리 같은 모양이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그 사람들은 그 풀꽃이 꽃아가씨의 한이 맺힌 꽃이라고 하였다. 그 후로 그 풀은 족도리풀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용도 및 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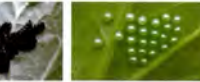
관상가치가 있는 높은 식물이라서 원예 및 관상용으로 쓰인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세신(細辛)이라 하여 발한·거담·진통·진해 등의 효능이 있어 두통·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 뿌리줄기를 박하사탕의 맛을 내는 원료로 쓰기도 한다. 뿌리를 캐서 말린 것은 발한제, 해열제, 진통제로서 감기, 두통, 치통에 쓰며, 기침,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등에 진해거담제로 사용한다. 뿌리와 줄기에는 아시타닌, 세사민과 메틸유게놀이린 기름성분이 들어있다. 씨앗과 근경(根莖)으로 번식한다.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포기나누기로 하거나 9월경 받은 종자를 바로 뿌린다. 화분, 화단이나 토양이 비옥한 반 그늘에 심는다.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애호랑나비



사황재비나비재비레

애호랑나비 유충

애호랑나비 알



자주족도리



취향들굴



황록선운족도리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스 티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립),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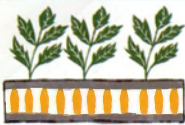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배럴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③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잎의 질감이 뛰어난 대형아주가
왕아주가

아주가는 꽃과 잎이 좋을뿐더러 지피력도 뛰어나 음지용 조경용 소재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이번에는 아주가 품종으로 볼륨이 큰 왕아주가 (*Ajuga reptans* 'Gutlin's Giant')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잎이 매우 크고 보라색의 꽃도 대형으로 식물 전체적으로 볼륨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잎 전체에 광택이 있어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나고 깔끔함을 느낄 수 있다. 일반 아주가와 마찬가지로 런너를 뻗어 증식하는데 몸체가 크기 때문에 지 피력 또한 다른 아주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음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나무아래 등의 음지에 군식하거나 에기아주가, 주름잎아주가 등과 혼식해도 좋다. 타식물과 혼식시 양 쪽식물로 이용해도 좋고 잎이 대형이고 질감이 뛰어나 메인사진에서 보듯이 잎의 색감과 질감이 좋은 그라스류 등과 어울려 심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무늬종 아이리스 등을 사이사이 심어 꽃이 지고 난 뒤 위로 치솟는 무늬종 아이리스와 엽색의 조화를 이루면서 또다른 느낌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번식은 런너를 이용하여 삼목하거나 근삼을 이용하면 된다. 생육이 강건하여 병해충에도 강해 특별한 관리의 필요 없지만 너무 짙들어 있는 경우 장마철을 전후하여 일부 솎아주거나 살균제를 살포해주면 더욱 좋다.



Q&A

Q: 이른 봄에 파종을 해서 바로 꽃을 볼 수 있는 품종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대부분 가을에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발아되어 일부 성장을 하는 식물들이 다음해 봄에 가장 빨리 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품종들을 보통 월년생 식물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꽃양귀비류가 있으며 그 외에 안개초,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유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을에 파종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봄에 파종을 하여도 큰 문제는 없으며 보통 3월경에 파종을 하면 생육상태에 따라서 6월 초 중순경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수변식물의 화려한 대안식물
크로코스미아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크로코스미아(*Crocasmia masoniorum*)는



구근의 형태로 자라는 식물이며 개화 습성은 글라디올러스와 비슷하다. 구근식물 중 내한성은 약하지만 물에 강해 수변지의 화려한 대안 식물로 추천하고자 한다. 일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의 섬과 제주도에도 많이 퍼져있는 식물로 꽃이 아름답고 증식이 매우 빠른 식물이다.

이 식물은 국내 순수종이 아닌 외래종으로 남아프리카 원산의 다년초이다. 주로 물가에서 생육이 왕성하지만 일반 나지 혹은 약간의 건조지에서도 생육이 강해 아름다운 꽃만 아니라면 아주 몸을 잡초로 인식되어 질 정도로 번식과 생육이 왕성하다. 이른 봄꽃과 흡사하지만 더욱 힘 있고 정갈한 맛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애기범부채

로 부르기도 한다). 꽃의 색상은 노랑과 주황 그리고 빨강으로 대표된다.

이른 봄에 꽃피는 식물 등과 혼합식재가 유리하고 특히 금낭화, 동의나물, 추식구근 등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생육이 급격히 떨어지는 종류와 함께 식재하면 좋다. 꽃은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피는데 그 이후에도 잎이 아름다워 매우 관심이 가는 품목이다. 이 식물은 반드시 경계웁스를 쳐 주는 것이 다른 식물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가득심어 놓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장관이 연출될 것이며 물빛과 혹은 초록과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절정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관리가 매우 쉬운 반면 혼합식재를 하거나 기타 식물과 경계를 두고 식재할 경우에는 차라리 화분 혹은 항아리 등에 넣어서 그 용기째 땅에 묻어 식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내한성이 약해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에 캐서 보관하거나 보온작업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구근이긴 하나 땅속 뿌리줄기를 기듯이 하여 번식하므로 번식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만 음지에는 다소 약하며 고자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토양살충제 등을 잘 뿌리고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꽃이 밑에서부터 위로 피어오르며 잎과 꽃대가 튼튼하여 절화용으로든 전망이 밝은 종류이다.

정원 혹은 넓은 면적에 식재, 아침마다 한아름씩 꽃대를 잘라 선물하거나 꽃병에 꽃이 두어도 정원의 꽃밀도는 줄어들지 않을 정도이다.



3. 암석가든용 식물

은은한 보라색 꽃잔디
꽃잔디 에메랄드



꽃잔디 에메랄드(*Phlox subulata* 'Emerald Cushion Blue')는 옥상, 암석가든용 식물로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꽃은 4~5월에 피며 꽃의 크기와 자라는 일반 꽃잔디에 비해 빠르고 강건하고 또한 화색이 은은한 보라색을 띄며 매우 고급스럽다. 깊은 상록이고 도로변 등에 군식해도 좋고 암석가든의 돌 틈이나 두세포기를 모아 심으면 좋다. 특히 레드킹, 레드아이, 흰꽃잔디 등과 번갈아 심으면 더욱더 그 화색이 돋보인다.

보석과 같이 청명한 화색의 보라꽃잔디 에메랄드 등 꽃잔디도 이제는 다양한 품종의 적용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꽃잔디 에메랄드는 봄의 아름다움을 한층 증가시킬수 있는 분명 좋은 소재이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순백의 무늬가 돋보이는 무늬염주그라스

이번에 소개할 그라스는 키가 작으면서도 무늬가 좋은 무늬염주그라스(*Arrhenatherum elatius* ssp. *Bulbosum* 'Variegatum')를 소개하려고 한다. 잎빛 멀리서 보아서는 사초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가까이서 잎을 관찰하면 화본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뿌리에 염주알 모양의 알뿌리가 여러개 붙어 있어 우리나라 이름으로 무늬염주그라스라고 불리어진다.

키는 약15~20cm 정도로 작고 잎이 매우 가늘지만 매우 다복하게 품을 형성하고 있다. 잎의 가장자리에 하얀색 무늬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순백색의 느낌을 준다. 경관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시원하고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느낌을 주는 식물이다. 모든 식물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이 있듯이 무늬염주그라스는 더위에 약해 여름에 하고현상을 일으킨다. 다시말해서 봄에 좋은 잎을 보이다가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날이 더워지면 잎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을에 날씨가 선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름다운 무늬를 선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혼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혼식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꽃무릇과 같은 여름에 꽃을 피우며 잎이 작거나 나중에 없어지는 식물과 혼식하는 방법으로 봄, 가을에는 무늬염주그라스로 표현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다른 혼식방법은 무늬염주그라스와 꽃을 섞어 심어도 순백의 잎과 아름다운 색감의 꽃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름을 커버해줄 여름 식물뿐만 아니라 어울리는 봄, 가을 식물과 혼식해도 좋다. 또한 홍피, 갈사초,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등 서로 잎의 색감이 다른 그라스류와 혼식해도 매우 좋다.

바로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큰 포기를 바로 식재하면 무늬염주그라스의 아름다운 무늬와 품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번식은 처음에 말했듯이 뿌리의 염주모양 같은 알뿌리를 포기 나



누기로 나누어서 증식한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여름에 다가서면서 잎이 갈변해지면서 지저분하게 되면 잎이 없어지기 전에 미리 잎을 잘라주는 것이 좋다.

Q&A

Q: 연과 수련을 심으려고 하는데 적절한 수심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식재방법이나 주의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생장초기에는 수심이 10~15cm 정도면 좋고 생육중기에는 20~30cm 정도가 적합합니다. 식재는 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해야 하며 이른 봄 잎이 나기전에 하는 것이 좋으나 여름철에 하여도 무난합니다. 봄 식재시 혹은 생장중기에 적절한 시비를 해주어야만 더 많은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딜(dill)

많은 영국 아이들은 배앓이 약(gripe water)에 들어있는 딜(*dill*)로 처음 허브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 매력적인 작은 깃털처럼 생긴 잎을 가지고 있다. 70cm 높이의 이 식물은 7월에 납작한 그릇 모양의 노란색 작은 꽃을 피운다. 말려진 잎들은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살짝 으갠 씨앗조차도 강한 맛을 가진다.

딜은 자라기 위해서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에 파종할 때는 30cm 정도의 간격을 둔다.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며 건조한 날씨에도 습한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꽃 봉오리가 갈색이 되면 줄기를 잘라서 씨를 수확한다. 각각의 꽃봉오리 위로 종이백을 뒤집어 씌우고 줄기들을 모아서 거꾸로 매단다.

얼마되지 않은 잎들을 바로 사용하거나 건조시키기 위해 모은다. 요리에 고명으로 쓰거나 모든 생선요리 특히 연어요리에 넣는다. 자른 잎은 요거트나 고기 야채 요리에 넣을 수 있고 씨는 오이 피클을 만들때 주로 쓰이지만 케이크나 빵, 생선과 쌀을 이용한 요리에 첨가할 수도 있다.



레몬밤(Lemon Balm)

레몬밤은 서양의 시골집 정원에서 키우던 허브인데 빛의 정도나 토양의 상태에 민감하지 않다. 약 90cm까지 자라는 잎이 무성한 다년생 식물로 박하처럼 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흰색 작은 꽃은 타원형 모양의 잎을 위해 자라는데 잎을 부수면 강한 레몬향이 난다.

봄에 파종을 할 수도 있지만 꽃지에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작은 묘종을 사서 키우는 것이 쉽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꽃을 없애주고 계절이 끝나갈 때 즈음에는 줄기를 지면 높이에 맞춰서 잘라준다. 옮겨서 포기 나누기를 봄에 해주면 가을에 더 많은 식물을 얻을 수 있다.

레몬밤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자른 신선한 잎은 샐러드나 생선 요리, 끓인 과일요리 등에 첨가할 수 있다. 레몬밤 차는 열감기 완화에 좋은 치료제이며 말린 잎은 포푸리로 사용한다.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계곡 바위틈의 봄 단풍 - 돌단풍

돌 틈에 피어나는 단풍이라니!

이름 참 곱다. 돌 사이에 뿌리를 박고 단풍 모양의 잎을 푸른 치마처럼 펼치고 앉은 돌 단풍은 이름이 제각각 야생화 중 하나다. 잎의 모양도 그렇지만 이른 봄에 돌은 짙은 적갈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른 봄에 짙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런 식으로 연약한 자신의 잎을 보호한다. 돌단풍에는 더욱 잘 어울리는 다른 이름 하나가 있다. 일명 '바위나리'다. 바위틈의 나리(백합)라니, 실물을 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을 짐작하고도 남은 이름이다.

돌단풍이 잎의 모양을 보고 지은 이름이라면 바위나리의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래서 더욱 꽃가에 아름답게 들린다. 돌단풍이 주로 자리한 곳은 계곡 주변이나 하천변의 바위틈이다. 경기도 가평군의 화야산 계곡이라든가 강원도 영월군의 동강 주변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습기가 많은 곳을 택해 돌단풍은 살아간다. 어찌 보면 척박한 곳이라 할 수 있는 바위틈에 뿌리를 서려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번 발붙이면 아무도 떼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바위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누가 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일 없고,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는 일도 없다. 그러나 바위틈은 가장 안전하고 편한 내 집이다. 아마 돌단풍에게 내 집 없는 설움 따위는 없을 것이다.

돌단풍의 꽃 자체는 화려하지 않다. 수수하게 생긴 꽃이 자잘하게 모여 피므로 꽃보다는 잎을 보기 좋은 꽃으로 여긴다. 하지만 배경이 대개 계곡 주변이다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난다. 그런데 드물게 약간 분홍색을 띠는 꽃이 피는 것도 있다. 분홍색 꽃이 흰색 꽃과 함께 섞여 피는 꽃차례가 달리기기도 한다. 동강이 흐르는 강원도 오지에서 그런 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컸다. 색이 다른 꽃은 원예품종으로 개발할 가치가 높다.

돌단풍(범의귀과) *Mukdenia rossii*

개화: 4~5월 높이: 30~50cm

분포: 충북 이북의 계곡이나 강변의 바위틈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 뿌리: 굵은 뿌리줄기가 있다.
- ▶ 잎: 뿌리잎은 2~5개가 나고 잎자루가 길며 손바닥 모양이고 5~7갈래로 갈라진다. 갈래조각은 난상 긴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는 결각이나 자잘한 톱니가 있다. 앞면은 광택이 있다. 봄에 돋는 어린 잎은 흔히 붉은 자줏빛을 띤다.
- ▶ 꽃: 4~5월에 뿌리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달리는 원추형의 취산꽃차례에 연한 붉은색을 띤 흰색 꽃이 촘촘히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5~6개이고 긴 난형이며 꽃잎처럼 보인다. 꽃잎은 5~6개이고 피침형이며 꽃받침잎 사이에 있고 크기가 작아서 꽃잎처럼 보이지 않는다. 꽃받침잎과 꽃잎 모두 흰색이다. 수술은 5~6개이고 암술은 2개이다.
- ▶ 열매: 난형의 삭과이다.



돌단풍의 단풍색 잎



돌단풍의 꽃



돌단풍의 분홍색이 섞인 꽃

유사종 알아보기

돌단풍은 남한 내의 돌단풍속 식물 중에는 유일하다. 같은 범의귀과 식물 중에서 범의귀속 식물은 많다. 바위취, 구슬바위취, 바위떡풀, 참바위취 정도가 있다.

바위취(*Saxifraga stolonifera*)는 동아시아 원산의 식물로, 관상용으로 심어 기른다. 땅 위로 기는 줄기가 뻗어가면서 번식하므로 화단이나 정원에 한번 심어두면 금세 잘 번진다. 그래서 흔히 지피식물로 이용한다. 잎에 무늬가 들어간 무늬종도 있다.

구슬바위취(*Saxifraga octopetala*)는 강원도 깊은 산의 계곡 주변에서 자란다. 꽃차례가 구슬처럼 둥글게 달린다 하여 '구슬바위취'라고 하던 것이 변한 이름이다. 있는 곳에서는 무리지어 자라지만 비교적 드문 편이다.



구슬바위취



바위떡풀



참바위떡풀



자생하는 돌단풍의 모습(강원도 영월군 동강)



바위취

심기와 관리하기

아침 햇빛이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

바위틈에 심는 것이 좋으나 만약 흙 속에 심는다면 뿌리줄기를 깊게 묻지 말고 흙 위에 엷듯이 심는다.

물은 충분히 공급하되 가끔씩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심는다.

겨울철에는 뿌리줄기와 꽃눈이 말라죽지 않을 만큼만 가끔씩 준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통풍이 좋지 않으므로 크고 거친 잎은 한두 장 정도 따주는 것이 좋다.

봄과 가을에 물거름을 희석해서 매주 한두 번씩 뿌려준다.

포기나누기나 종자로 번식한다. 6~7월경에 받은 씨를 뿌리면 1주일 전후로 싹이 트고 2년차에 꽃이 핀다.

바위떡풀(*Saxifraga fortunei* var. *incisulobata*)은 산지의 습기 있는 바위틈에서 자라며 비교적 흔한 편이다. 꽃잎은 5개인데, 위쪽의 3개는 짧고 아래쪽의 2개는 길어서 큰 대(大)자 모양이 된다. 이런 꽃의 모양이 바위취와 비슷하지만 바위떡풀은 야생종인 점이 다르다.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자라고 잎자루에 털이 많은 것을 '털바위떡풀' (var. *pilosissima*)로 구분하기도 한다.

참바위취(*Saxifraga oblongifolia*)는 지리산 이북의 높은 산 바위틈에서 자라며 비교적 흔하지 않다.

바위떡풀에 비해 잎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매우 불규칙한 톱니가 있는 점이 다르다. 5장의 꽃잎이 서로 크기가 비슷한 점도 다르다.



심은 돌단풍의 모습(한택식물원)



글 사진 이종혁

핵이심촌의 꽃나루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특집 2016 IPM Story



아르마다는 우리가 육종한 상록잔디매왕이(Dianthus 'Diantun Twinkle')의 라이선스를 확보해 유럽 전역에 생산과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글 사진 박공영(우리씨드 그룹 사장)

매년 독일의 작은 도시 에센에서 1월 마지막 주말을 마지막 날로 하는(올해는 1월 26~29일 4일간 개최) 윈예 산업 박람회가 개최된다. 작은 꽃에서부터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의 품종의 육성, 개발, 생산과 유통의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토양, 비료, 종자, 묘종 등 농업자재와 농업기계 등 농업 전 분야의 업체들이 참가하

고 전 세계의 관련 종사자들이 찾는 윈예, 무역의 최대 박람회다. 그 해의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방향성을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큰 행사이다.

우리씨드그룹은 현재 우리꽃연구소를 통하여 주로 품종의 개발과 육종을 진행하는 회사이다. 우리꽃영농조합 법인은 다양한 꽃과 관목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종자에서 나무까지 거의 모든 정원용 식물을 취급한다. 벽화수주식회사는 주로 조경과 정원사업 그리고 수직정원 분야의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진 회사이다. 최근엔 함양에 공장을 세우고 식물을 직접 심는 콘크리트 블록을 개발, 직접 생산, 납품 및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와 3명의 직원, 그리고 유럽 현지 지사 역할을 하게 될 독일의 젊은 청년과 함께 11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사실 거의 매년 찾는 전시회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품종의 반응과 그해 평가를 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해 매년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가든센터에는 다양한 규격모토묘가 판매되고 있다.



근교의 전원 정원, 클라인가르텐

독일에 도착한 날은 토요일이라 일요일까지 주변의 산책과 가든센터 등을 방문하며 숨고르기를 했다. 물론 처음 유럽의 날씨를 접하는 새로운 우리팀원들에게 기본적인 유럽의 날씨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중점으로 보아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품종의 소개를 위한 PPT의 수정작업에 집중했다.

일요일은 근교의 작은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많은 일들 중에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공감과 교육을 통한 전래 및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이런 작은 체류형 공간이 있는 정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규제가 뒤 따른다. 아직은 활성화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사전 교육, 그리고 여러 지자체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 묵은 숙소는 아파트먼트라는 아파트형의 숙소이고 가장 큰 장점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짜여진 일무 일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여행 중 일반 호텔에 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 하지 않는다. 특히 약간의 자유 일정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프랑크푸르트 아인슈타인 선생(프랑크푸르트 시립합창단원)의 숙소에서



IPM박람회 중 바이어들에게 우리의 품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플랜팅 피터와 로알티 미팅 후 상록진디패랭이 트윈클을 들고 기념 사진



무간디에서 1차 생산한 뒤 네덜란드에서 2차로 생산하기 위해 들어온 코레우리 묘종

그들은 우리의 품종을 아주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2~3년 내에 포트용 패랭이로는 가장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구는 새로운 품종의 시험재배를 하고 싶다는 요구이다. 하지만 아직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판매량에 약간의 불만이 나로서는 좀 더 넓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회사를 찾는 미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장의 신뢰와 점진적인 확대가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후 2시 플랜팅을 찾았다. 그들은 우리의 대부분의 품종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품종 라이선스 관리회사이다. 사실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많은 경우 거의 문전박대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업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품종은 절대로 재배 혹은 그 라이선스를 확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앞 다투어 새로운 품종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장시간의 싸움과도 같은 기다림이었다. 2006년부터 육종을 시작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의 로열티 수출 시장을 확보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주인장은 프랑크푸르트의 시립 합창단원으로 청년이 보장된 종신음악가인 이진수 선생이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자체로 감동이다. 특히 약간의 술이 있다면 더더욱 심금을 울린다. 나와는 4년 지기 형제이다. 그가 차려주는 정겨움은 만찬(?)에서도 나타난다. 프랑크푸르트의 매세(박람회장) 신도시에 위치한 모차르트는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이 박람회나 출장길에 많이 이용하는 아지트이다(+49 176 20835046 모차르트 이진수).

25일 월요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예센을 향해 출발했다. 26일 우리는 10시쯤 박람회장에 들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느낌은 예년의 모습과 비슷했다. 우리는 여러 회사들과 미팅을 가졌다. 주로 새로운 품종의 수입과 관련한 상담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사인 아르마다를 방문했다. 아르마다는 우리가 육종한 패랭이(Dianthus 'Dianturi Twinkle')의 라이선스를 확보해 유럽 전역에 생산과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올해 우리의 트윈클의 판매는 19만개를 달성했다고 한다.



플랜팅의 오더를 받아 우리의 품종인 코레우리, 가우라 품종을 생산중인 알크마디라는 네덜란드 회사



우리의 제품들에 대해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스스로 대견하다. 처음 유럽의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싸늘한 반응과 그로 인한 자괴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우리의 품종을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꽃연구소가 개발한 품종은 일본과 유럽과 호주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우리의 코레우리(대한민국 우리꽃연구소에서 개발한 코레옵시스란 뜻)는 이제 세계적인 기술과 품종(Coreopsis rosea 'Bloomsation' Series, C. rosea 'twinklebells' Series 그리고 C. verticillata 'Melon Scape')을 육종, 개발했다. 그리고 가우라(Gaura lindheimeri 'Baby ButterflyTM DarkPink') 시리즈, 패랭이(Dianthus 'Dianturi Twinkle') 등을 앞세워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시험재배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 시험재배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Lowes(로우스)와 HomeDepot(홈디퍼)에서 판매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들 매장은 미국전역에 3000개가 넘는 대형 유통점을 가진 거대기업이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품종독립군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예와 로열티 수출로 실질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시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연간 로열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3년내 연간 30억을 목표이다.

더욱이 올 해 새롭게 선보일 신품종은 이전의 타임에서 훨씬 더 진화된 혁신적 신품종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있다.



아르마디의 육종가 Mark Boder 가 생산중인 상록진디패랭이 트윈클을 보며 주고 있다.



유럽에서 재배되어 지고 있는 상록진디패랭이 트윈클

다음호에 계속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3월 March

물결처럼 흘러지고
사라질 낭만이어!



글 사진 오 경 아

봄의 정원에 느닷없이 내리는 눈은 반가운 소식이다.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연재를 시작하며

속초에 자리를 잡고 두 번째 겨울이다. 속초로 가는 길은 나는 물론이고 많은 지인들이 서울 인근을 떠나 관찮겠느냐고 우려와 걱정을 했던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슈퍼마켓 가는 길에 푸른 동해바다가 오른쪽 차창에서 하얗게 파도를 칠씩이고, 외양간을 개조한 내 사무실 창으로 설악산은 늘 모습을 바꿔 나를 맞는다. 여전히 잠재돼 있는 우려와 걱정 속에 꿈속이 어지럽다해도 이 자연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을 든다.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이기 전에 정원을 즐기려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속초의 생활을 함께 공유해보려고 한다. 정원이란 원예를 뛰어넘고 디자인을 건너 문화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 문화의 진정한 재미가 없는 결코 정원은 지속되기 힘들다.

속초에서
온 편지



버리는 스트로폼 상자를 이용해 만든 기르는 상자.



오지 않는 눈을 기다리며

2014년과 2015년의 겨울엔 속초엔 눈이 거의 오지 않았다. 전해 겨울엔 1미터 넘는 눈이 내려 지붕이 내려앉을까 걱정했던 일과 비교하면 눈 내림에도 해질이 있다 싶을 정도다. 그리고 올해도 눈이 내내 내리지 않아 걱정이 늘어갔다. 속초는 이웃해 있는 양양, 고성에 비해 아주 작은 면적의 도시다. 인구는 8만으로 웬만한 서울의 동만도 못하지만 관광지로 유동 인구가 한해 천만 명을 웃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시 전체에 늘 물 부족이 심해 지난 해 봄에는 매일 밤 10시 이후로는 단수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속초의 유일한 상수원 공급지는 설악산이다.

설악산에 비와 눈이 내리고, 이 물이 천을 만들며 동해로 흘러간다. 속초시는 이 천 중에서 양양과 경계에 있는 쌍천에서 물을 받아 이것으로 상수원을 공급한다. 그 쌍천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옆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쌍천의 물이 말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물 걱정에 한숨이 나온다.

봄정원에 내리는 눈

설을 앞두고 속초에 기다리던 눈이 내렸다. 무엇보다 좋은 건 푸석거렸던 정원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 풍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마당에 지어 놓은 정자의 지붕을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위에 흰 눈이 쌓이니 더할 나위 없다. 열 명 남짓의 텃밭 정원에도 눈이 가득하다. 정원은 눈이 덮이지 않으면 매설고 빠른 겨울바람에 의해 흙 표면이 일어나 바람에 휩쓸려 나간다. 이 현상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흙 속에 다년생 초본 식물의 뿌리가 겨울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눈은 겨울정원에 이불이 되어 준다. 아무리 따뜻한 아랫목이라고 해도 이불을 덮어주지 않으면 뒤통에 바닥이 식을 수밖에 없다. 그 원리가 정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눈이 겨울의 찬 기



3월의 정원은 아직 춥고 서리다. 후위에 익힌 식물로 구성된 실내용 화분 구성이 완성되었다.

운에 얼면 눈처럼 보이지만 실은 딱딱한 얼음이 된다. 이 얼음같은 눈이 두터운 이불을 땅에 덮어놓은 것처럼 흙을 보호하기 때문에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눈 밑의 흙은 얼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탓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식물의 생존율이 높아져 다음 해 봄 좀 더 풍성한 정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눈이 정원에 내려야 할 이유는 또 있다. 겨울엔 낙엽이 지는 식물은 물론이고 상록의 침엽수조차도 마치 활동을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물어지면 이로 인해 봄이 와도 싹을 틔울 수 없게 말라 죽는 현상도 생긴다.

겨울눈도 좋지만 봄에 내리는 눈은 더 반갑게 맞아야 한다. 봄 눈은 한꺼번에 폭설처럼 내려도 바로 녹아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눈은 녹으면서 흙 속에 천천히 수분을 넣어주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흙 속으로 녹아들게 한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다. 결론적으로 눈은 내릴 때보다 녹을 때 정원에 더 많은 이점을 준다.

상록수의 겨울나기

정원에는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록수가 있다. 주목나무, 회양목, 향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원에서 이 상록의 나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생을 타리다. 속초 집 뒷밭정원은 앞집 할머니의 텃밭과 바로 연결돼 있다. 지난 해 가을 정원을 꾸미면서 이 경계에 우리는 주목나무를 심어두었는데 지금은 삼각형의 형태지만 잘 자라주면 생울타리로 반듯하게 각을 잡아 담장을 대신할 수 있을 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울타리는 바람을 막아주고, 인공적인 담장을 대신해 초록의 볼거리를 대신해주지만 폭설이 내리면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 원래의 삼각형 형태가 아니어서 눈이 그대로 쌓여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진다.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린 후에는 눈을 털어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

또 눈이 내린 잔디밭은 되도록 걷지 않는 것이 좋다. 눈이 온 뒤 얼어 있는 상태라면 눈을 밟는 순간 식물 전체가 바스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잔디 위의 눈은 되도록 밟지 말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눈을 치워 빠르게 녹여주는 것이 좋다.

물결처럼 사라지고 흩어질 낭만이여!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지붕의 경사와 모양은 그 지역의 강수량, 적설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내가 살고 있는 속초 집은 기와를 얹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팔작지붕 형태다.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전주인은 이 팔작 기와지붕에 물이 새자, 기와를 걷어내지도 못하고 그 위에 파란 양철 지붕을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으며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다.

다시 없었다. 그런데 겨울을 나면서 내가 경험한 이 팔작지붕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 팔작지붕의 기둥기는 눈이 내리면 바로 쏟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서서히 아래로 눈을 녹여 떨어뜨린다. 결론적으로 한동안 지붕은 두터운 눈을 이고 있게 된다. 물론 이 눈의 무게가 건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뛰어난 보온 효과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든다. 게다가 처마 끝에서는 눈이 녹으면서 찬 기운에 다시 얼면서 생기는 고드름도 이 지붕 각도 덕분에 생긴다.

‘浪漫’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없는 요즘이다. ‘물결 낭’에 ‘흩어질 만’으로 구성된 낭만은 단어의 뜻처럼 ‘물결처럼 머물지 않고 흩어질 것들’이다. 그래서 현실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꼭 이러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은 정말 물결처럼 어느 한 순간 머물지도 않고, 변화하고 그리고 결국은 흩어져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마 밑에 매뿔한 고드름이 햇살에 반짝 빛을 내는 그 찰나의 짜릿한 행복이 분명 있다! 곧 녹아떨어질 고드름이지만 그 빛나는 얼음 속에 담긴 우리 얼굴 속에 낭만이 있고, 이 낭만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8기’ 모집



과정 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6년 3월 23일 ~ 6월 22일(매주 수요일), 총14강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강료: 30만원(총 65만원 중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35만원 지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 소개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강의순서	강의내용
제 1강	개강식/ 식물환경
제 2강	수목종류와 특성
제 3강	채소정원 조성
제 4강	식재 및 관수
제 5강	정원의 이해
제 6강	실내정원조성
제 7강	수목의 전지 전정
제 8강	이성화의 종류
제 9강	정원계획
제 10강	병해충관리
제 11강	실외정원조성
제 12강	정원답사
제 13강	비배잔디
제 14강	식물번식 / 수료식

조경가든대학 공통커리큘럼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허브 향기로 직장인의 피로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 건강강연과 아로마테라피 체험(DIY)

글 사진 윤정식 -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생활의 향기 대표
www.aromatherapy.or.kr / www.aromalife.com aromalife@naver.com

국내 최초 허브건강세미나와 아로마테라피 체험을 기업체에서 시작한 지도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요즘 대세중의 하나는 직장인들의 건강과 지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일이다. 여기에 허브와 아로마테라피가 가장 적격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직접 허브 향기를 알아보고 HERB로 풀어보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제로 아로마테라피 DIY를 통해 근육관절스프레이나 천연에센스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경험하는 향기치유(Aromatherapy) 프로그램은 요즘에 특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허브건강세미나와 아로마테라피 체험은 주로 3부로 진행되며 2시간 가량 소요된다.

제1부: 허브 향기와 HERB를 통해 알아보는 건강한 나의 인생

1. 허브를 맡으며 효능에 대해 알아보기

허브 식물의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각자 허브식물이 향기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듯이, 직원 개개인의 각자의 향기와 장점을 잘 파악하여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HERB로 풀어보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의 삶

Health(건강): 허브 식물이 햇빛을 잘 받고 물을 잘 흡수해야 건강하듯이 우리 몸도 피가 잘 순환해야 건강함, 직장에서도 사원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순환이 잘 되느냐에 따라 건강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음

Eat(먹거리, 食): 먹는 음식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하는 말을 먹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Refresh(신선, 상쾌): 오늘은 나에게 '단 하루'뿐인 아주 소중한



천연에센스 만들기 체험



인티스트레스 향수만들기 체험



근육관절스프레이 만들기 체험

한 날'이다. 나에게 보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 매일 매일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 보자~!

Beautiful My Life(아름다운 나의 인생): 나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꿈과 목표를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꿈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

허브 향기로 소중한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위하여,
파이팅!!!

제2부: 직장인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로마테라피 체험(DIY)

1. 인티스트레스 허브향수만들기(스트레스를 자몽 향으로 싸~악) 자몽, 오렌지, 버가못, 로즈우드, 페퍼민트 등의 에센셜오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스트레스 해소 천연 허브향수
2. 근육관절스프레이 만들기(몽친 근육 피로를 허브향기로 날리자!) 페퍼민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라벤더, 마조람, 노간주나무 열매, 캐모마일 에센셜오일 등을 활용한 근육관절스프레이
3. 천연에센스 만들기 (천연 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노화, 탄력 에센스)

호호바, 로즈힙, 알로에 베라젤, 로즈워터 등에 노화와 탄력이 뛰어난 로즈, 제라늄, 프랑킨센스 오일 등을 넣어서 만드는 천연 에센스

제3부: 내 인생의 Miracle(기적)

시각장애인 천재 모차르트도 불리는 예은이와 닮지 않게 통째로 알아보는 삶의 Miracle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기적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이 또한 기적이지요, 나를 닮은 자녀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직장)이 내 인생의 Miracle입니다! 당신 인생의 Miracle은 무엇입니까?

>> 근육관절스프레이 만들기



재료
아로마 에센셜오일(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라벤더 등 14종), 식물성 에탄올, 진나무위터, 정제수, 솔루빌라이저, 용기 등

만드는 방법

1. 비커에 솔루빌라이저(가용화제) 3g을 넣는다.
2. 근육관절 블렌딩 에센셜오일(페퍼민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라벤더 등) 70방울을 넣고 잘 저어준다.(50번 정도)
3. 수상베이스(진나무위터+정제수+식물성 에탄올) 43g을 넣고 용해시킨다. (100번 정도 저어준다.)
4. 해당 용기에 넣고 스틱커를 붙인다.

>> Step by Step



3월 실내외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나눔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록 101 저자

3월은 봄이 시작되어 남부지방에는 매화가 꽃이 피고 산에는 복수초, 노루귀 등 야생화들이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싱그러운 자연의 숨결과 향기를 집 안에 서도 실내 관엽 식물에 사랑을 담아보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은 필요하다. 가정마다 한 두 개의 관엽식물은 두고 있을 것이다. 겨우내 겨울잠을 자고 있던 실내화초를 가족처럼 생각해보자. 겨우내 입었던 가족들의 옷가지를 정리하듯 식물들도 옷을 갈아입히고 서서히 햇빛을 쬌이는 시간을 늘려 건강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동안 실내에 놓여있던 화분을 실외에 내어 놓으려면 갑작스런 추위와 저녁 서리를 대비해서 아직은 이르다. 갑작스런 변화를

적응하기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보면 된다. 긴 겨울동안 실내에 있던 식물들은 연약해져 있다. 갑작스런 강한 햇볕 또한 상처를 쉽게 입힌다. 겨우내 방치해 두었던 식물이 건강하지 않나 싶을지 모르겠다면 잎이 가지런하고 잎의 줄모양이 선명하며 색이 선명하지 관찰한다. 다음으로 뿌리가 화분의 배수구로 나오거나 물 빠짐이 잘 안될 경우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죽게 된다. 꽃이 피는 식물이라면 꽃을 보기 위해 적당한 햇볕을 자주 피도록 해주며 그만큼 관수를 더해주자.

실내 식물 관리

식물의 배치장소

서서히 길들여 배란다로 내어 놓는다. 내어 놓는 시기는 추위가 강한 식물은 3월 중순부터 약한 식물은 4월 초순에 내어 놓으면 된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한 번에 내어 놓지 말고 서서히 햇빛과 추위에 길들여 다음 내어 놓는다. 그냥 나가면 잎이 타거나 얼어 버린다. 길들이는 시간은 약 1주일정도 하면 된다. 일기예보와 온도를 보고 내 놓는 시기를 정한다.

햇빛관리

그동안 실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해 약해진 식물을 서서히 햇빛에 적응 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햇빛을 보여 줘야 한다. 이때 보통 40~50% 차광한 햇빛을 보여 준 후 5월이 지난 후에 100% 햇빛에 내어 놓으면 된다.

물주기

3~4월이 되면 생장하기 시작한다. 이시기부터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생육이 좋지 않게 된다. 특히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허브 종류는 물을 말리는 것은 금물이다. 물주는 오전 중에 하며 충분한 양을 줘야 한다. 흙이 마르면 화분이 밑에 물이 나오도록 흠뻑 준다. 화초를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기이다. 물의 온도는 실내 온도와 비슷한 20℃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에 물을 줘야 화초가 받침에 고인 물을 낮 동안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흙의 표면을 만져봐서 부석부석 말라있을 때나 화분이 가벼워져 있을 때 물을 주도록 한다.

비료주기

새싹이 돋는 식물에는 유기질비료를 주면 그 후의 생장은 너무 좋아진다.

병충해

이때부터 서서히 해충이 텃밭기 시작한다. 벌레가 생기기전에 잎에 물을 자주 뿌려 주면 벌레 발생에 예방이 된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겨울동안에 꽃이 피서 진 것만 골라서 가지치기를 한다. 이 시기에 함부로 하면 형성 되었던 꽃이 잘라 버리면서 다시는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다.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은 가능하다. 이 시기엔 철쭉종류, 동백나무, 기타 관엽 식물도 가능하다. 여름에 꽃 피는 식물은 불가능하다.

화분갈이

여하튼 새로운 화분은 이전의 화분 보다 커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큰 화분은 뿌리의 성장만을 유발시켜 흙 윗부분의 성장은 느려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실내용 화초는 화원에서 판매하는 배양토를 사서 심으면 된다.

기타관리

2~3일마다 흙의 젖은 상태를 점검하고 잎을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잎이 싱싱한지, 시들어 아래로 늘어지거나 색깔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추운 장소에 있는 화초는 물을 조금만 주고 실내는 습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기온이 영상인 날에는 환기를 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준다.

실외 텃밭 관리

땅이 해갈되면 밭을 만들어야 한다. 식재하기 위해서는 심을 식물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식용 부위별로, 과별로, 온도에 대한 적응성, 종자 파종 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텃밭의 규모에 따라라도 채소를 심는 종류도 달라지고 이랑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밭도 고르고 퇴비 준비도 하고 이랑도 만들고 종자도 잘 선택하고 모종도 잘 고려해서 심어야 한다.

식용 부위별 채소 분류

엽채류: 썬채소, 배추, 들깻잎 등 가족이 즐겨 먹는 채소

과채류: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등

근채류: 무, 순무, 우엉, 당근, 토란, 아근, 고구마 등

화채류: 브로콜리, 꽃양배추 등

인경채류: 파, 마늘, 부추, 양파, 쪽파 등

온도에 대한 적응성 따른 채소 분류

호냉성채소: 배추, 양배추, 숙갓, 시금치, 근대, 파, 양파, 마늘, 부추, 상추, 셀러리, 비트, 당근, 아스파라거스, 무, 순무, 감자 등 가을이나 이른 봄에 심는다.

고온성 채소: 가지, 토마토, 고추, 수박, 참외, 호박, 멜론, 고구마, 토란, 생강, 옥수수, 동부, 콩, 축순 등은 모종을 5월에 심는다.

과별로 채소 분류

백합과: 파,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부추, 쪽파, 옹골 등

토란과: 토란 등

마과: 마 등

화본과: 옥수수 등

명아주과: 비트, 시금치, 근대 등

십자화과: 케일, 양배추, 배추, 무, 유채, 갓 등

콩과: 콩, 적두콩, 완두, 녹두, 동부, 강낭콩, 팥 등

산형화과: 셀러리, 당근, 미나리, 파슬리 등

매꽃과: 고구마 등

가지과: 고추, 가지, 토마토, 감자 등

박과: 수박, 참외, 멜론, 오이, 호박, 박 등

국화과: 우엉, 숙갓, 돼지감자, 상추, 머위 등

초롱꽃과: 도라지, 더덕 등

햇빛과 건조 정도에 따른 채소 분류

강한 햇빛을 좋아하는 채소: 호박, 가지, 수박, 토마토, 오이, 딸기, 당근, 양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약한 햇빛에도 자라는 채소: 배추, 양배추, 파, 시금치, 양상추, 아스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거름 만들기



1 공기 순환 및 배출을 하기 위해 고무 통 앞면의 중앙을 드릴로 중앙을 뚫는다.



2 공기 순환 및 배출을 하기 위해 고무 통 앞면의 사방을 드릴로 사방을 뚫는다.



3 공기 순환 및 배출을 하기 위해 고무 통 앞면을 사방으로 간격에 맞게 드릴로 뚫는다.



4 고무통 뚫은다.



5 고무통 바닥에 먼저 낙엽을 깔고 난 뒤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 준다.



6 음식물 찌꺼기를 넣고 그 위에 퇴비를 넣는다.



7 퇴비 위에 낙엽이나 음식물찌꺼기를 넣고 흙이나 퇴비용 심토를 넣는다.



8 그 위에 퇴비를 넣고 두께를 적당히 만든다. 한 달마다 내용물을 뒤 섞는다. 3개월 정도 되면 비료로 사용 할 수 있다.

파라거스, 두릅, 토란, 실파 등

그늘을 좋아하는 채소 : 머위, 생강, 파드득나물(참나물), 고추냉이 등
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채소 : 미나리 등
약한 습한 장소에서 자라는 채소 : 우엉, 근대 등
약한 건조한 장소에서 자라는 채소 : 고구마, 강낭콩 등

좋은 묘를 고르는 방법

토마토, 오이, 고추, 피망, 호박 등은 보통 시판하는 묘를 구매 쓰는 것이 좋다. 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해의 작황이 80% 결정된다. 좋은 묘는 아래 잎이 단단히 붙어 있고 맨 위쪽 순 잎이 상심하며 딱잎이 붙어 있는 것. 잎과 잎 사이 마디 길이가 짧고 키가 낮을수록 탄탄한 것이다. 줄기가 굵고 짜임새가 제대로 갖추어진 모양과 잎이 두텁고 색이 진할수록 좋다. 또 잎이나 줄기, 뿌리 근처에 병으로 생긴 반점이 없고 뿌리 흠뻑치기 묘의 크기에 비해 균형이 잡혀있고 뿌리가 모종 포트 밑으로 조금 보이면 된다. 모종은 늦서리가 지난 후에 구매한다.

파종이나 심기는 적기에 해야 한다.

종자 봉지에는 파종 시기와 뿌리는 법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시기를 지키는 것 중요하다. 파종에 앞서 씨를 염려가 있는 종자는 배고 겹질이 단단한 종류나 발아율이 낮은 것은 파종 전 날물에 담가 물을 흡수시키면 싹트기가 빨라지며 발아율도 높아진다.

좋은 흙 만들기

채소의 맛은 흙이 좌우한다.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이 토양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작물을 심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1평당 최소 1kg 이상의 부엽토를 넣고 30cm 깊이까지 일구어 잘 혼합해 준다.

좋은 종자 고르기

신용할 만한 종묘회사에서 구입하고 발아율이 높은 것과 채종 년, 월, 일이 가능한 최근인 것을 구입한다.

퇴비 만들기

음식을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거나 잡초 제거하거나 수확 후 잔여 식물체 등을 퇴비 간에 넣어 퇴비를 만들고 지렁이를 통해 퇴비를 만든다.

밭 만들기

1. 땅 고르기 풀이나 돌을 골라내고 대충 땅을 고른다.
2. 퇴비 넣기 - 1평당 15kg 이상 흙에 뿌리고 깊게 흙을 파서 섞는다.
3. 이랑 만들기 - 씨를 뿌리거나 묘를 심는 곳을 이랑이라 한다. 건조에 강한 것은 높게 하고 건조를 싫어하는 것은 낮게 평평하게 한다. 보통 이랑 넓이는 1.2cm가 무난하다. 양쪽에서 뽕쳐 작업하기 알맞기 때문이다. 이랑 사이에는 35cm 폭의 통로를 만든다.
4. 종자 뿌리기 - 씨 뿌리는 방법에는 종자 크기에 따라 줄 뿌리기, 흙어뿌리기, 점 뿌리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종자가 큰 종자는 줄 뿌리거나 점 뿌리기를 하고 종자가 미세종자는 흙어뿌리기를 한다. 적당한 습기가 있는 밭은 씨앗을 뿌리고 괭이 등으로 눌러 건조를 막는 것만으로도 물을 줄 필요가 없다. 마른 땅에는 물을 흠뻑 주고 완전히 스며든 다음에 종자를 뿌린다. 줄 뿌리기와 점 뿌리기 하는 종자는 보통 종자의 5배정도의 두께로 흙을 덮고 얇도록 낙엽이나 짚, 풀을 덮어 준다. 미세종자는 흙과 종자를 섞어서 흙에 뿌려준다. 복토를 하지 않는다. 씨가 나기 시작하면 걷어내야 한다. 쓰고 꼭 종자는 봉지나 통 등을 넣어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

채소 텃밭 규모와 배치

소규모 텃밭 : 상추, 썩박, 아욱 등 작물 크기 작고 재배기간 짧은 것을 선택한다.

큰규모 텃밭 : 옥수수, 완두콩, 고추, 호박, 토란, 감자, 고구마 등 재배기간 길고 식물크기가 큰 채소를 선택한다.

이랑 방향 : 키 큰 작물-서쪽, 북쪽

키 작은 작물-동쪽, 남쪽

실외 씨감자 심기



중부지방은 3월 말~4월 초에 심는다. 지그재그로 25cm 정도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감자를 심는다. 봄 재배는 두 줄로 심는 것이 수확량에 도움이 된다. 씨눈 위로 향하여 심는다. 거꾸로 심으면 감자가 불이 고여 씨눈 수도 있고 씨가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심고 2~3배 물을 준다.

실내 대파 심기



2014년 3월 17일 월계동 모습
대파를 다들일 때 뿌리 부분을 잘라 화분에 심어서 키운다. 첫가력으로 관수시기를 체크한다. 첫가력의 명숙에 들어간 부분이 마를 때 관수한다.

강동구 상일동 공동체텃밭



강동구 상일동 공동체텃밭 전체 모습



상일동 공동체 텃밭 현황도



밭을 만들기 위해 이랑을 만든다.



퇴비를 넣는 토양 모습



퇴비간 모습



지렁이 퇴비 모습



토종 밀 모습



토종 보리 모습



부추 모습



마늘 모습



흙 고르기 모습



파종하는 모습

정원과 아이들 (Garden & Kids)



아이들을 위한 정원도구

요즘은 어린 아이들의 키와 몸 크기에 맞게 디자인된 원예 도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어른의 도구만큼 무겁지 않고 어떤 것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에 맞춰 손잡이가 조절 가능한 제품들도 있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도구를 선택해 보자!



모종삽

어린 정원에서든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모종삽은 작은 구멍을 만들고 잡초를 캐낼 때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유용한 작은 삽이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지만 손에 편하게 맞으면서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모종삽은 땅을 파기에 충분히 튼튼해야 한다.



핸드 레이크

작은 화단과 식물 사이의 땅을 고르게 하는데 최고이다. 씨뿌리기나 묘목 심기, 그리고 자리 잡은 식물들 사이에 자라는 더 작은 잡초를 뽑는 것을 더 쉽게 하도록 한다.



가위

보통 가위처럼 손잡이를 움켜쥐는 줄과 노끈을 자르고 씨앗 봉지를 여는 것부터 죽은 꽃송이를 잘라내고 제멋대로 자란 식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정원의 모든 업무에 쓰인다. 때때로 작기로 잔가지나 나뭇가지를 자를 때 쓰는 잔가지깎는 원예용 가위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어른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 절대 표면이나 땅에 가위를 발로 밟아 놔두지 말고 어른들의 관리에 맡긴다.



모종 심는 막대 (Dibber)

씨앗이나 모종을 심을 때 땅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낼 수 있다. 두 개를 줄로 연결하면 줄을 잡아 싹에 할 때 유용하지만 필수적인 도구는 아니다. 만약 막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신에 두꺼운 막대기를 사용해도 된다.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조심하도록 하자.



식물 라벨

씨를 뿌리거나 구근을 심은 위치를 표시하기도 하고 식물의 이름과 날짜를 적어 놓기도 하며 관리 방법이나 수확시기 등도 추가해서 적을 수 있다. 라벨을 구매하거나 아이스크림 막대나 깨끗한 요거트 용기를 자른 조각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재미를 줄 수 있다.



정원용 끈

정원용 끈은 식물과 식물, 지주대와 줄기를 묶어주거나 줄 맞춰 식재 할 때 직선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장갑

가시와 나무 조각, 해기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더러운 정원 일을 할 때 손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장갑을 사용한다. 장갑이 크면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손에 맞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한다.



양동이

손잡이 있는 양동이는 매우 유용하다. 양동이는 식재 전 식물의 뿌리를 정제 하기 위해 담가놓을 수 있고 잔재물을 모으고 흙과 퇴비를 옮기고 심지어 손도구들을 운반하기에 좋다. 양동이는 많은 사이즈가 있지만 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채우면 옮기기에 너무 무거울 수 있으니 주의한다.



물조리개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로 옆쪽과 위쪽에 손잡이가 있는 물뿌리개를 준비한다. 필요한 곳에 물을 줄 수 있으며 물뿌리개를 잘 다룰 수 있게 도와 준다. 끝이 잘 맞는 살수구를 가진 것은 씨앗과 어린 식물에 게 물줄기에 적합하며, 식물의 잎 아래 가지에 물을 줄 때는 살수구를 떼고 사용한다.



삽

큰 구멍을 파거나 퇴비 혹은 거름과 흙을 섞을 때 사용되는 삽은 가장 유용한 장비 중 하나이다. 삽은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삽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날의 가장자리는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튼튼한 신발이나 부츠를 신어야 한다.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고 삽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레이크

레이크는 손잡이와 직각인 빳빳한 갈래를 가지고 있다. 흙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갈퀴

갈퀴는 손잡이의 끝에 뿔처럼 생긴 갈래를 가지고 있다. 잔디밭의 나뭇잎이나 잔가지를 모을 때 사용된다.



손수레

정원 주변의 도구와 퇴비, 식물을 옮기기에 극히 유용한 손수레는 여러 크기로 구할 수 있다. 아이에게 알맞은 손수레 사이즈를 사용하고 너무 많이 담지 않도록 한다.



식물원 탐방



향기와 맛이 있는 허브농원

팜카밀레

글 편집실 사진 팜카밀레 제공

팜카밀레가 위치한 충남 태안은 예로부터 풍수의 피해가 미미하여 사람들이 살기에 크게 편안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포근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이 다양한 생태환경을 만들어 왔다. 태안은 1월 평균기온 4℃의 등온선이 지나므로 식물의 남북한계선(南北限界線)이 형성되어 독특한 식물분포를 나타내는 등 자연적 특징을 보여 주는 곳으로 휴양의 적지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1시간반, 대전에서 1시간 20분, 광주에서 2시간으로 전국적인 접근성이 좋고 가로림만에서 안면도까지 이어진 해안은 훌륭한 트레킹이나 산보코스로, 몽산포에 이르는 8km의 숲모랫길 코스는 완만한 평지의 곰솔숲길과 마을길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포근한 탐방을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다. 그리고 코스 중간에 자연 놀이장이 만들어져 우리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쉬어 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최고의 힐링코스이다. 청포대 마을의 전통 어로방식인 독살과 갯벌체험, 신촌리 마을의 염전체험도 가능한 코스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탐방객에게 추천할 수 있고 독살, 갯벌, 염전체험을 즐기며 어촌마을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4년도 바로 이 곳 태안에 33,000㎡의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팜카밀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약 2년간의 조경 및 시설을 공사가 진행되었고 2007년도 개원을 하여 사람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이후에도 게스

트하우스, 허브식품가공시설 설비, 힐링센터 등 꾸준히 시설확충을 하였고 2104년, 2015년에는 2년 연속 농식품부 선정 최우수 관광농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팜카밀레 농원은 크게 스페셜가든, 부대시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팜카밀레 박정철 대표는 땅과 바람과 비와 함께 허브와 식물들을 가꾸고 어루만지며 자연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되고자 농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농원내에는 200여종의 허브와 300여종의 야생화와 그라스, 수생식물 그리고 100여종의 관목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연못에는 새들이 목을 축이고 토끼는 물레 들어와 풀을 뜯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높이 풍차에 올라서면 서해안 몽산포 해변이 어렴풋하고 시골의 아늑한 풍경이 밀려온다. 아침에는 제 과정에서 방 굽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밤엔 어린 왕자가 되어 뻘에서 어릴 적 꿈을 깨내어 어루만져 보는 상상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레스토랑에서는 캐모마일, 민트, 베베나를 수확하여 차를 만들고 달, 헨넬, 바질, 크레송을 찍어 샐러드와 요리를 한다. 오레가노와 아로우, 기린초, 라벤다는 드라이플라워가 되어 레스토랑과 우리의 집을 장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화정수도 추출하고 비누와 캔들 직접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

스페셜 가든(SPECIAL GARDENS)

WILD GARDEN 팜 카밀레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 셀렉션 되어 있는 와일드 가든은 샘물 가든이기도 하며,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의 습한 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낮은 언덕을 만들고 굴을 만들어 와일드한 군락지를 연성하여 설계하였다.

ROSE GARDEN

60여 품종의 장미가 군집하여 있는 장미원은 5월부터 11월초까지 꽃이 피고 진다. 일부 장미는 화장수의 원료가 된다.

CAKE GARDEN

케익을 잘라 놓은 듯 회양목으로 테두리를 만든 이곳은 대비 되는 꽃 칼라를 식재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LAVENDER GARDEN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허브이지만 국내에서 재배하기 가장 어려운 허브가 잉글리쉬 라벤다이다. 라벤다는 고온 다습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인데 팜카밀레에서 만날 수 있다. 화정수와 에센셜오일을 추출하여 차와 포푸리의 원료로 이용된다.

KITCHEN GARDEN

20여종의 식용 허브가 재배되는 치킨 가든은 레몬밤, 베베나, 코리안더, 크레송, 바질, 오레가노, 세이지, 민트, 헨넬 등이 재배된다. 허브차, 샐러드, 바비큐, 허브 빵, 각종 소스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ANIMAL GARDEN

공작, 꽃달, 당나귀, 사슴 산양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온순한 동물들이 살아가며 직접 먹이도 주고 만지며 동물들과 친구가 된다. 동물의 분비물은 거름이 되기도 한다.

CHMOMILE & SAGE GARDEN

봄이면 캐모마일 꽃이 가득하여 허브차와 화정수의 원료가 된다. 가을엔 세이지가 화려한 보라색 꽃을 피운다.

EVENT GARDEN

이벤트 가든은 봄엔 톨립, 여름에 해바라기, 스파클, 가을엔 국화축제가 열리는 가든이다. 테라스에서 허브차를 마시며 한눈에 축제장을 조망할 수 있다.

WATER GARDEN

3개의 연못이 있는 팜 카밀레 습지 식물원은 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 생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어 습지 식물과 수중곤충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KNOT GARDEN

노트가든은 중세유럽의 문양 가든의 모습을 모방하여 팜강나무를 군식하였다.



로즈가든



케이크가든



치킨가든



이벤트가든

부대시설(Subsidiary Facility)

레스토랑

슬로푸드 뷔페, 허브꽃밥, 허브냉면, 파스타, 바비큐 등에 농원에서 재배된 허브와 대안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사용한다.

제과점 & 카페

허브차와 커피를 갖 구운 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가까에서 농원을 조망할 수 있으며 등나무 아래 시원한 숲속의 느낌을 준다.

허브샵

1천 여종 허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원에서 직접 가공한 허브차, 화장품, 비누, 허브잼들과 수입품등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차별화된 허브 제품이 있다.

게스트하우스 / 펜션 어린왕자

농원 한가운데 구릉 위에 자리한 펜션은 프로방스의 느낌과 칼라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어린왕자 벽화가 건물 입구 마다 그려져 있고 테라스나 2층 방에서 농원을 조망할 수 있다. 펜션에서의 하룻밤은 지친 일상에서 자연 치유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방

일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허브관련 재료가 공방에 준비 되어 있다. 비누, 화장품, 장식품 등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으며 허브 장식과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외무대

음악회, 결혼식, 공연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하늘아래 허브와 바람과 함께 하는 행사는 깊은 감동과 추억을 준다.

풍차전망대 팜 카밀레 주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풍차에서는 몽산포 해변과 주위의 농가적 풍경을 볼 수 있으며 농원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힐링센터

죽육스파, 허브온열치료실, 허브차운, 이어캔들과 마음 수련과 상담을 통하여 힐링을 체험 할 수 있는 이곳은 방향성식물과 관엽수, 상록수가 조성되어 있다.

롯데 & 캠핑, 물놀이장

농원의 가장 높고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무를 소재로 지은 친환경의 롯데에서의 생활은 농원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집이다.



허브샵



펜션 어린왕자

스페셜 프로그램(Special Program)

슬로푸드

올바른 음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농원에서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요리를 한다. 로컬푸드와 텃밭가꾸기 도시농업, 가드닝을 경험할 수 있다. 진로체험 농업과 가드닝에 관계된 1차 산업, 가공 및 2차 산업, 레스토랑 관광에 대한 3차 산업을 배우고 익힌다.

힐링체험

마음수련, 자아 찾기, 스트레스 해소, 가족과 친구, 직장 내 인간관계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



www.kamille.co.kr T.041-675-3636

도시와 자연의 결합, 생태복원 연구기업

에코홀 시스템

(특허 제10-1429481호)



Echo 웬스

광장, 계단, 주차장, 도로중앙분리대, 경계용으로 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신개념 실용화본

Echo 방틀

저수호안의 방틀, 하천호안, 식생호안, 사면보호, 세굴방지, 화분용

구 입 문 의



벽화수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황곡리 2191) / T.055-964-7992 F.055-962-7901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가든 캄파넬라

김영조 65

경기도 양평 조그만 저수지를 끼고 돌아 앉아 있는 가든 캄파넬라 정원은 200여평 정원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식 정원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십자형 통로를 두고 조성한 정미 정원과 야생화 정원이 있는 1층 정원은 주택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전적인 기하학적 문양을 이용한 회양목 화단으로 구성된 2층에는 회양목 안쪽으로 허브류와 채소류를 식재해 소소한 재미와 함께 아내의 위한 키친가든을 조성해 놓았다.

정원에는 자두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뽕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백당, 조팝나무 등과 튤립, 무스카리, 수선화, 나리, 알리움, 아스타, 키네시아, 속근후룩스, 노루오줌, 향달맞이, 금강초롱, 초롱꽃류, 버베나, 아스타, 일본 대왕나팔꽃, 허브류 등이 식재 되어 있으며 바랜듯한 붉은색 벽돌의 조형물들과의 조화가 돋보인다.

12년 전 터를 잡고 처음에는 잔디와 반송으로만 조성한 정원였는데, 안사람에게 환갑선물로 기약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2013년 봄부터 설계, 시공해서 지금의 정원으로 재탄생 되었다고 한다. 물론 정원이라는 것이 한 순간에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오면서 보아 왔던 것들이 모티브가 되어 기초가 된 것이다. 특히 임춘화 가든디자이너의 포천의 허브빌리지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 후 직접 가르침을 받는 열정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일본의 여러 정원들과 오사카 엑스포 정원, 1990년 꽃박람회, 1970년 세계만국박람회 등이 정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초석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유명한 우에노파의 로맨틱가든을 탐방하고 나서는 정원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릴수가 있었다고 한다. 우에노파는 1906년 홋카이도에 정착한 우에노가의 개척인들의 후손들이 가족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한 곳인데, 여러해살이 풀인 속근류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영국식 정원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창고를 개축해 카페를 만들고, 허물어진 듯한 붉은 벽돌 벽들의 조화가 유명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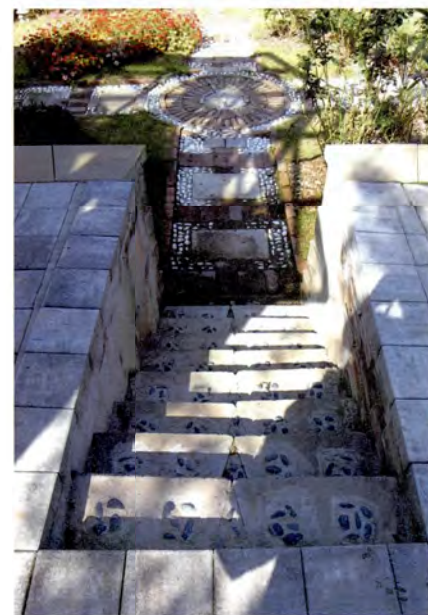
그 뿐만이 아니라, 지인이 유명한 영국 가드너의 부인이라 도면을 직접 들고 영국까지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희귀한 꽃을 구하기 위해 외국에 방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수집했다고 한다. 씨앗의 경우 밀봉, 소독이 된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와 맞아 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독특한 색과 향을 지닌 식물을 키워 볼 수 있다는 설렘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디자인은 색을 중요시 하여 계절마다 색의 테마가 있게 했으며 특히, 가을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흰 꽃과 보라색 꽃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조성했다고 한다.





관리는 주로 해 뜨는 시간에 운동 삼아 잡초 제거와 관수 하며, 방제는 유난히 병이 많은 화양목만 1년에 2번 정도 친환경제제로 방제하고 있으며, 모든 방제는 손으로 직접 하는 편이라 한다. 장미의 진딧물도 직접 잡고 물로 씻어 관리 한다고 했다. 비료는 영국 장미 정원을 방문해 보니 장미가 탐스럽고 건강해서 그 곳에서 쓰고 있다는 비료를 사다가 2년 정도 묵혀서 썼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아 성분 분석을 해 보니 계분과 여러 가지 유기물을 혼합한 것을 알아 내고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비료는 정원 한쪽에 낙엽을 30cm정도 쌓고, 돈분을 사이에 넣어 썬다. 썬다 완전히 발효 부숙시켜 사용하는 데, 가을에 속근류에 뿌려 주고 짚으로 덮어 주면 월동 준비와 함께 밀거름 걱정도 없어진다고 한다.



“아내를 위해 조성한 정원이지만,
나에게 정원은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예쁜 꽃의 씨앗을 구해서 심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먹을 것을 얻으면서 감사하고,
늘 할 일이 있는 이곳이
평생 여생을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놀이터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계속 놀아야지요...하하”

힐링원에

글 사진 김혜숙(신안산대학교 기든스쿨 교수 /
실내원에 및 힐링원에 저자)

오늘 저는 한 평 남짓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제 삶을 보듬어 주는 꽃 한 송이를 기웁니다.
화초를 가꾸는 일은 곧 제 삶을 돌보는 것이지요. 색이 나오고 꽃이 필 때면 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설레며,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Chapter 2. 숲 정원

숲정원이란?

숲에 착생하는 식물들을 고정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과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숲과 조화 있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숲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여름 또는 건조한 겨울철에 숲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준다.



▶ 숲의 기능

숲은 조직이 치밀하고 탄소량이 많은 참나무를 태운 것이다.(참숯)

탄소 85%, 수분 10%, 각종 미네랄 3%, 휘발성분 2%로 구성되어 있다. 숲의 표면적은 1g당 200~4002 m로 되어있어 미세한 구멍이 있어 흡입력이 강하다.

- ① 제습기능 - 습한 곳에 두면 미세한 구멍이 습기를 빨아들인다.
- ② 가습기능 - 따뜻한 물을 부으면 많은 습기를 내뿜는다.
- ③ 흡착기능 - 미세먼지와 냄새를 제거하여 공기를 청결하게 한다.
- ④ 물 정화기능 - 물의 이물질 등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다.
- ⑤ 방부기능 - 쌀 등에 함께 넣으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 ⑥ 공기 정화기능 - 탄소 성분이 방출하는 음이온은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한다.
- ⑦ 토양조절기능 - 사질 토양에 넣으면 보수성, 보비성을 높이고, 점질 토양에 넣으면 통기성, 배수성을 높인다.
- ⑧ 전자파차단기능 - 전기제품 주위에 놓으면 전자파 발생을 억제한다.



▶ 숲정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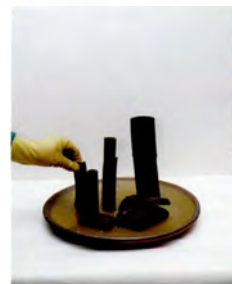
재료: 통숯(대나무 숯), 비단이끼, 만다빌라 산드라, 콩짜개, 자갈, 부엽토, 용기 등

▶ 숲정원에 적합한 식물들

석곡과 풍란 등 착생란, 건조에 강한 다육식물, 대기 중의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공기식물, 마삭줄, 석창포, 돌단풍, 콩짜개, 상록 고사리류 등이 알맞다.

▶ 식물들을 고정하는 재료

실리콘, 철사, 실, 본드, 순간접착제, U자형의 못, 생명토 등을 이용해 숯에 고정한다.



1) 용기에 다양한 크기의 숯을 정착제를 이용하여 높낮이를 다르게 고정시킨다.



2) 통숯 속에 부엽토를 넣고 만다빌라 산드라를 심는다.



3) 숯 표면에 콩짜개를 붙인다.



4) 용기 바닥에 자갈을 깔고 부분적으로 비단이끼를 놓는다.

숲정원 관리법

작품이 완성되면 물을 충분히 준 후 4~5일 정도 그늘에서 두었다가 반그늘로 옮긴다. 또한 공중습도가 낮으면 뿌리가 마르는 만큼 숯에 완전히 뿌리가 내릴 때까지 스프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3월10일~20일 사이에 개최되어 현장설치가 가능한 구근매트 예약주문 받습니다.

|가든인 칼럼|

도심속에 자연의 정서까지도 연출하는 또 다른 즐거움

글 사진 서준혁



나는 숲속의 작은 개울가의 이끼가 잘 피어있는 바위와 이 바위들 틈새에 뿌리를 박고 피어난 노루오줌의 꽃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시원한 물냄새를 느낄 때 가장 여유롭고 행복감을 맛보곤 했다. 그리고 조경용 식물을 생산하고 또 그 식물을 이용한 조경을 하면서 이 숲속의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 아름다움을 적용하고 숲속에서 느끼는 그 신선함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물론 이것도 조경의 한 패턴이므로 주변 건물의 형태와 전체 조경 패턴을 고려하여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장소가 있고 발주 고객의 기호와 궁합이 맞아야 한다.

다양한 혼합식재의 기법을 통하여 조경의 패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후 가장 많은 문의가 한 장소에 다양한 식물이 적용되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경관리는 많은 종류의 식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어떤 경우 많은 종류가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봄부터 꽃을 피워내므로 일반적인 군락식재보다 단점이 가려질 수도 있다. 때문에 조경은 관리를 해야 하는 당연한 과정을 이해하지 않



면 좋은 경관연출은 불가능하다. 토양이 건조하면 관수를 해야 하고 비료가 없어지면 양분을 공급해야하고, 병해충이 생겨 식물을 가해하면 방제를 해야 하고,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 단정하게

해야 하고 포기가 너무 늘어나 식물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적당히 솎아 주어야 하고, 내한성이 약한 식물은 겨울동안 보온을 해야 하고 등등, 조경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이런 인식이 있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의 느낌까지도 함께 연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고목 등 자연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관 연출



자연경관을 모델로 연못조성

첫째, 숲속의 아름다운 경관을 떠올려 모델을 설정하라.

작은 웅덩이를 만들것인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들것인지, 물은 없어도 이끼가 피는 축축한 느낌을 연출할 것인지, 햇볕이 잘드는 숲을 연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모델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 모델은 직접 다녀 본 숲속의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둘째, 자연구조물을 적극 활용한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끼가 붙어 자랄 수 있는 둥근형의 바위나 산돌, 그리고 고목의 뿌리나 줄기 등 자연구조물을 이용하면 쉽게 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만약 자연구조물의 구입이나 준비가 어렵다면 인공의 구조물을 이용하되 되도록 선과 색 등이 튀지 않는 단순한 구조물이 유리하다.

셋째, 바닥면의 마감재에 유의해야 한다.

인공의 마감재를 되도록 줄이고 천연의 자재를 이용하는데 굵은 마사



마감재로 황토마사(위)와 화산석(아래)을 이용한 예

나 강자갈 등 천연의 재료가 유리하고 만약 잘 구워진 황토마사 혹은 화산석 등이 있으면 더욱 유리한 면이 있다.

넷째, 준비된 각각의 요소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우선 자연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주제와 부제를 나누고 또 제 2주제와 부제, 3주제와 부제 등을 나누고 이들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제 1주제를 가장 먼저 선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부제를 놓아 주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주제와 부제의 결합은 다양한 변형된 삼각구도가 가장 유리하다. 제 1주제를 설치하면 제 2의 주제를 1주제가 돋보일 수 있게 설치하고 그 부제를 설치한다. 물론 이 때도 변형된 삼각의 구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구조물의 설치가 끝나면 식물을 선택적으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선택된 식물의 종류와 패턴에 따른 식재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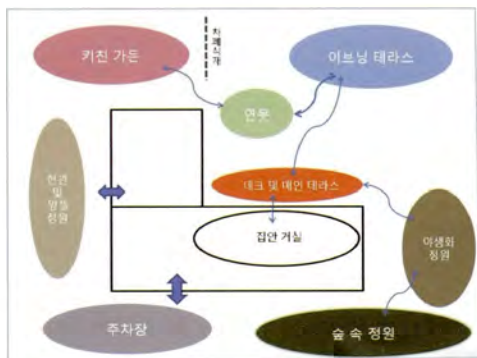
물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식물을 배치하고 화기나 화색, 키 등을 고려하여 혼합식재한다. 혼합식재의 개념 중 이런 곳에는 군락을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심하게 번지는 종류나 종자에 의한 증식이 너무 빠른 종류는 되도록 피하여 식재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식물의 자연천이가 진행되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관의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고 관리에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정원으로의 여행 12

A trip to the garden

정원에서 쓰인 다양한 공간들

어떤 정원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 하면 좋은 것이 주제 정하기 즉, 컨셉잡기였다. 주제를 잡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제에 맞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디자이너에게 있어 창조적인 정원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나'를 위한 정원을 만들 때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접근 하는 것이 정원 만들기 쉬운 방법이다.



다이어그램 - 전체적인 장소에 대한 스케치를 하고 공간을 동그라미 정도의 간단한 모양으로 구분하고 표시해 준다. 화살표는 굵기에 따라 주 동선과 부동선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동그라미는 서로 연결되게 하여 동선을 나타내 준다.

먼저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 목록을 작성하고 정원 만들 공간으로 나가보자. 간단하게 적을 종이와 연필이면 준비물 끝. 그림에 소질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스케치가 바로 다이어그램이다. 다이어그램(Diagram)은 원래 그림이나 그림표를 의미하는 말로 누구나 쉽게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정원에서는 부지 조사나 분석을 할 때 설계도를 그리듯이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되는 건축물과 그 밖의 부지와와의 관계, 정원 안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해야 할 부분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 그늘이 지는 곳, 양지마른 곳, 차폐가 필요한 곳 등으로 표시한 후 그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거나 식물을 심어준다. 그림을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 네모, 선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며 화살표는 동선을 나타내어 준다. 굵기에 따라 주동선, 부동선, 차선,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표현할 수 있고 점선이나 곡선 등을 이용하여 식재지, 차폐지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내 정원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과 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려하게 된다. 단순히 식물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경관, 창문을 열었을 때 조그만 공간에서 바라보이는 식물 등 여러 각도로 정원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테라스 정원 시공 전과 후의 모습 -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길이 좁아 쓸모 없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정원으로 만들고 나니 3평 남짓한 공간이 넓어 보이기 되었다. 아무렇게 심겨있는 나무들은 한군데로 모아 심어 하나의 크고 풍성한 나무로 배치를 하였고 데크와 벽면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색이 되기 때문에 숲 속 분위기기가 나는 우드랜드를 테마로 잡고 디자인 하였다. 식물은 남천, 호스터, 선비, 키모마일 등이 심겨졌다

아주 조그만 공간이라도 미리 구상을 하고 정원을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쁜 정원이 탄생할 수 있다. 혹시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나무들과 식물들을 그저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 이 기회에 가지고 있는 식물들만으로 깔끔하게 정리 정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원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다 자란 몇 십년된 나무를 사거나 많은 식물을 사서 넣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린 나무를 사서 정성 들여 키우는 것이 세월의 아름다움도 간직할 수 있는 정원이 아닐까? 어떤 모습이 내 집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리해 나가면 어떤 다른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작 잃은 와인 잔의 재활용 샌드아트



글 사진 우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회원회장



Material



맥반석으로 배수층을 만들어 준다.



숯가루를 넣어 준다. (배수구가 없는 용기의 경우 정수기능이 있는 맥반석과 숯을 사용해 배수층의 물을 정화시켜 준다.)



흙 중앙이 부분으로만 넣어 준다.



흙 가장자리로 여러 가지 색의 색모래를 번갈아 가면서 숟가락으로 모양을 내며 켜켜이 쌓는다.



흙이 있는 부분에 구멍을 내고 식물들을 식재한다.



식물의 뿌리를 흙으로 잘 덮어 준다

» 관리법

배수구가 없는 용기는 많은 관수를 하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거나 썩어서 고사하기 때문에 배수층 보다 많은 관수는 피한다. 유리로 된 용기는 수분순환 작용에 의해서 수분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 화분에 주는 관수량보다는 적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기는 일반식물과 똑같은 횟수로 해주는 것이 좋으며, 한정된 공간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나친 생육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비료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샌드아트

색 모래를 이용해 흙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재배를 하거나, 가운데 부분만 흙을 사용하여 식물을 식재하고, 가장자리는 색 모래로 모양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무늬는 물결무늬를 일반적으로 하나 창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내고 색을 배합함으로 즐거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 미술활동이기도 하다.

COLOUR IN THE GARDEN

Orange Flowers



오렌지색은 주로 여름 정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의 눈과 미각을 즐겁게 해 주기도 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의 상큼함이 그대로 정원의 곳곳을 물들인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꽃에서부터 텃밭에 심는 벌레퇴치용 꽃(한련화나 메리골드) 그리고 감이나 오렌지처럼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에 이르기까지 오렌지 컬러의 이용은 무궁무진하다. 노란색이 태양을 의미한다면, 오렌지색은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에너지가 모여져서 오렌지의 열매를 만들고 1년 내내 태양빛을 받아 가을의 끝자락에 붉고 감으로 우리 광주리를 가득 채운다.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해 주는 빨강과 노랑사이에 섞여서 더운 느낌을 상큼한 이미지로 바꿔주기도 하는 오렌지색의 꽃들(Orange Flowers)의 매력을 고스란히 정원에 담아 보자.

오도

물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애스키난서스 '루벤스'
Aeschynanthus Rubens
제스네리아과 온실식물
▶ 1-2월 수 5월, 10월 ↑ 0.4m



코키네아안틸리스
Anthyllus vulneraria var. *coccinea*
콩과-속근초
▶ 5-6월 수 4월, 10월 ↑ 0.2m



빌베르기아
Billbergia richardii
파인애플과 온실식물
▶ 1-2월 수 5-10월 ↑ 0.5m



인디카칸나
Canna indica
홀초과-속근초
▶ 6-7월 수 4월 ↑ 2.5m



애기범부채 '루시퍼'
Crocosmia Lucifer
붓꽃과-속근초
▶ 7-8월 수 4월, 10월 ↑ 1-1.2m



데스폰타니아
Desfontainia spinosa
마전과-상록활엽관목
▶ 7-8월 수 3월, 10월 ↑ 2m



삼지닥나무 '레드 드래곤'
Edgeworthia chrysantha 'Red Dragon'
팔초나무과-낙엽활엽관목
▶ 3-4월 수 3월, 10월 ↑ 1-2.5m



상귀네아원말채나무 '미드윈터 파이어'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층층나무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3월, 10월 ↑ 1-1.5m



코키네올레보트리움
Embolanthus coccineum
프르테이과-상록활엽관목
▶ 5-6월 수 4월, 10월 ↑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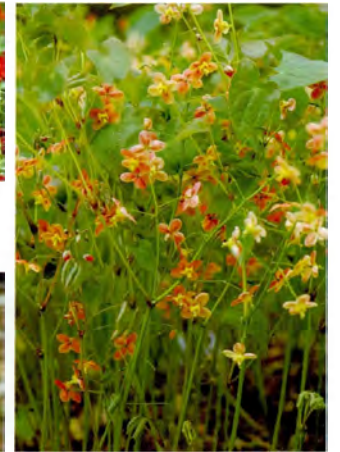
체이리쑥부지쟁이 '파이어 킹'
Eysenium cheiri 'Fire King'
심자화과-일년초
▶ 4-6월 수 4월 ↑ 0.6m



그리피티대극 '딕스터'
Euphorbia griffithii 'Dexter'
대극과-속근초
▶ 7-8월 수 4월, 10월 ↑ 0.9m



그리피티대극 '편 코티지'
Euphorbia griffithii 'Fern Cottage'
대극과-속근초
▶ 7-8월 수 4월, 10월 ↑ 0.9m



삼지구엽초 '오랑게코니그'
Euphrasia x warleyense 'Orangekonig'
매자나무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3-0.6m



프리틸라리아 교배종
Fritillaria imperialis 'Acaudata'
백합과·속근초
▶ 4월 순 9월 ↑ 0.8~1m



글루마카리스
Glumicalyx flanaganii
현삼과·속근초
▶ 5월 순 4월, 10월 ↑ 0.6m



프리틸라리아 '아우레오마지나타'
Fritillaria imperialis 'Aureomarginata'
백합과·속근초
▶ 4월 순 9월 ↑ 0.8~1m



헬레니움 종류
Helenium sp.
국화과·속근초
▶ 6~8월 순 3월 ↑ 0.8~1.2m



헬리안테움 '헨펠드 브릴리언트'
Helianthemum 'Hankel Brilliant'
시스투스과·속근초
▶ 5~7월 순 3월, 10월 ↑ 0.8m



원추리종류
Hemerocallis sp.
백합과·속근초
▶ 6~7월 순 3월, 10월 ↑ 1~1.2m



휴게라 '카라멜'
Fuchsia 'Caramel'
범의귀과·속근초
▶ 6~7월 순 3월, 10월 ↑ 0.6m



보꽃종류
Iris Seedling SDB3
보꽃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6m



페텐코이칼랑코에
Kalanchoe fedtschenkoi
돌나물과·온실속근초
▶ 1~2월 순 4월, 10월 ↑ 0.3m



보꽃 '페우 두 시엘'
Iris 'Fau du Ciel'
보꽃과·속근초
▶ 6월 순 3월, 10월 ↑ 0.8~1m



만기나칼랑코에
Kalanchoe marginata
돌나물과·온실속근초
▶ 1~2월 순 4월, 10월 ↑ 0.3m



칼랑코에 '제베디'
Kalanchoe Zebra
돌나물과·온실속근초
▶ 1~2월 순 4월, 10월 ↑ 0.3m



란타나
Lantana sp.
마편초과·속근초
▶ 6~8월 순 3월, 10월 ↑ 1m



백합종류
Lilium sp.
백합과·속근초
▶ 6~8월 순 3월 ↑ 1m



인동 '드롬모어 스칼렛'
Lonicera x brownii 'Dragonfire Scarlet'
인동과·낙엽활엽관목
▶ 6~8월 순 3월, 10월 ↑ 5m



수선화 원예종
Narcissus cv.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자다스'
Narcissus 'Cordas'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루시다메트로시데로스
Metrosideros lucida
도양금과·상록활엽관목
▶ 5~6월 순 4월, 10월 ↑ 4m



수선화 '다나에'
Narcissus 'Donae'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엘렉트루스'
Narcissus 'Electus'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파이어브랜드'
Narcissus 'Firebrand'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마이 스토리'
Narcissus 'My Story'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퍼펙트 레이디'
Narcissus 'Perfect Lady'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수지'
Narcissus 'Suzi'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업 데이트'
Narcissus 'Up date'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우파롱'
Narcissus 'Uploring'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수선화 '우드랜드 스타'
Narcissus 'Woodland Star'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순 10월 ↑ 0.6m



라테리티움양귀비
Papaver latifolium
양귀비과·일년초
▶ 5~8월 순 3월, 10월 ↑ 0.8m



아우리쿨라영초 '팬페어'
Primula auricula (mixed)
영초과·속근초
▶ 3~4월 순 3월~10월 ↑ 0.3m



베누스타피로스테기아
Pyrostegia venusta
능소화과·낙엽활엽관목
▶ 1월 순 4월, 10월 ↑ 6m



만병초 '콘로이'
Rhododendron 'Conroy'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순 4월, 10월 ↑ 1.5m



캠페리철쭉
Rhododendron 'Spicy Lights'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순 3월, 10월 ↑ 1~2.5m



철쭉 '스파이스 라이츠'
Rhododendron 'Spicy Lights'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순 3월, 10월 ↑ 1~2.5m



장미 올드 존
Rosa Old John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순 3월, 10월 ↑ 0.9m



일본조팝나무 '골든 프린세스'
Spiraea japonica 'Golden Princess'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순 3월, 10월 ↑ 0.8~1m



튤립종류
Tulip sp.
백합과·속근초
▶ 4~5월 순 10월 ↑ 0.5m



크리산타튤립
Tulipa clusiana var. chrysanthia
백합과·속근초
▶ 4~5월 순 10월 ↑ 0.5m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①

일.이년생 식물

Annuals and biennials

일.이년생 식물이란?

한해에 생활사를 모두 마치는 식물을 일년생이라고 하며, 첫 해에 잎을 관찰하고 다음해에 꽃을 피우고 생활사를 마치는 식물은 이년생이라고 한다. 일.이년생 식물들은 생활사가 짧지만, 그 용도가 다양하고 유지와 재배가 쉬운 편이다. 또한 어떤 조경지에도 맞추어 식재할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생생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무와 관목 또는 숙근초가 자리 잡을 때까지 화단의 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단, 화분, 행잉용 바구니 등에서도 모두 잘 자란다.

신품종

매년 신품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런 신품종은 완전히 새로운 식물일 수도 있고 기존의 품종을 개량한 것일 수도 있다. 품종 개량은 꽃색의 선택이나 개화시기를 늘리고 서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작은 정원에 알맞은 왜성종이나 행잉 바스켓, 창가 화분에 적합한 품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신품종은 자생지의 한 개체군에서 어린 식물들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일년초화단

가져오거나 유전적인 돌연변이로부터 개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적, 지속적 품종개량은 많은 품종의 혈통의 혼동의 가져오고 분류를 복잡하게 한다. 이렇게 혈통이 혼동되고 몇 개의 품종들이 유사하거나 같은 구조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품종들은 군을 형성한다. 특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 정도의 특색이 다른(보통 꽃 색) 품종은 시리즈로 묶어 부른다.

조경적용

일.이년생 식물은 정원을 새로 만든 경우에 나무와 관목이 정착하기 전에 빠르게 자라서 여러 색을 관찰할 수 있다. 식물들이 자리 잡은 정원의 경우 큰 틀 안의 공간을 채우고 색깔을 바꾸는데 쓰인다. 향기로운 꽃은 벤치나 의자가 있는 구간 등 감상 포인트에서 가까운 곳에 심어보고 즐긴다.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은 공간이 제약되는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곳에 특정한 목적으로 쓰인다. 일년생 덩굴 식물은 나무나 다른 지지대에 기대 자란다.

》공공의 정원

주의 깊게 디자인된 패턴, 주로 대조되는 모양과 색으로 구성이 된다. 전체 화단을 채워 색감 있는 카펫을 만들어낸다. 이런 작업은 플러그나 포트에서 길러진 어린 모들을 재배, 식재하는 계획부터 필요하다. 봄 식재는 팬지나 꽃무, 물망초 등을 틀림과 함께 혼합하거나 여름에는 밝은 톤의 꽃들과 은색 톤의 잎들이 있는 식물들을 함께 이용한다.

》일년초 화단

일년초들은 화단에 바로 뿌리거나, 모로 심는다. 전체 화단을 일년초로 심는다. 접시꽃, 디기탈리스, 스위트피 또는 양귀비 등 큰 키 일년초를 뒤에다 심고, 키 작은 식물은 전면에 배치하는 두 겹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화단이 많이 쓰인다. 흰색은 거의 경계에 걸쳐있는 색상으로 많이 쓰인다.

》충전재로서의 일년초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한 계절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다. 물망초처럼 꽃이 빨리 피는 종들은 구근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늦게 꽃 피우는 숙근초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데에도 좋다. 늦은 시기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 같은 종들은 개화기가 빠른 숙근초나 한 번만 꽃이 피거나 늦은 여름 동안에 반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종들을 대체하기에 좋다. 또한 자생지가 관목지인 숙근초 뒤에 키가 큰 일년초를 심으면 그 그들은 자생지와 같은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새로 식재한 관목과 다년생 숙근초 지역에도 일년초들은 몇 해 동안 지면을 채우며 생동감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낮은 관목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 디기탈리스가 아주 대표적이다. 낮은 관목들 사이에서 위로 솟아나와 자라 경관적인 포인트를 제공한다.

》혼성 식재

자연스런 설계 계획에서 실제로는 아주 주의 깊게 계획되었지만 보기에 자연스럽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식재를 창조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 가지 색상이 우점 하여도 다른 색들과 자연스럽게 산재되어 섞여 한 색과 다른 색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공공의 정원



신품종



초장식물



혼성식재

- 가든인 생생정보 -

따뜻한 성질을 지녀 여성에게 유익한 구절초



관상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 기르기도 하며, 꽃이 달린 전초를 그늘에서 말려 한방과 민간에서 부인냉증, 무월경, 폐경, 기관지염, 해소, 감기, 인두염, 고혈압, 위장병, 치풍 등을 다스리는데 쓴다. 양지쪽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구절초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맛은 쓴다. 구절초 술은 신경통에 좋으며 중풍 치료제나 보혈장장제로 쓰이기도 한다. 구절초 꽃잎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없어지고,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두통을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한다. 단전을 따뜻하게 하거나 자궁허행을 치료하고 생리를 조절하거나 몸을 쉽게 하며 소화기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농약(작물보호제) 만들기

키우는 채소에 진딧물이 생기면 써보세요. 인터넷에서 검증된 친환경 작물보호제들입니다.

- ① 목초액 : 나무를 태울 때 발생되는 연기가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역화된 목초액은 자연농약으로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초액은 진딧물 예방제로 쓸 수 있고 진딧물 잡는 데는 약하게 감식초를 타서 뿌려도 됩니다. 그러면 진딧물 알이나 유충의 피부가 녹아버려 죽는다고 합니다.
- ② 마요네즈 희석액 : 마요네즈의 주원료인 기름과 달걀노른자에 살균, 살충 작용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마요네즈 1 : 물 200으로 섞어 흔들여 씁니다.
- ③ 달걀껍질 식초 : 먹고 난 달걀의 껍질도 농약의 재료가 됩니다. 잘 말린 달걀껍질에 현미식초를 달걀껍질에 잠길만큼 부어주면 됩니다. 숙성시킨 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면역성도 길러주고 뿌리도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 ④ 요구르트나 막걸리 작은 것 한병 사서 분무기에 넣어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러면 진딧물이 싹 없어진답니다.
- ⑤ 우유를 분무기에 넣어 진딧물이 있는 곳에 뿌려 주세요. 그러면 감쪽같이 진딧물이 없어진답니다. 집에서 채소를 키울 경우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만든 작물 보호제를 뿌려주면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채소 제대로 손질하기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가지고 있고 항산화성분이 풍부하다. 줄기가 갈라지는 부분을 잘



라내어 작은 송이로 나눈다. 줄기를 만져보면 연한부분이 있는데 이곳을 제외한 역센 부분을 모두 잘라낸다. 소금물에 흔들여 씻어 신선한 빛을 살리면서 불순물도 없애 준다.

피망

피망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피망의 비타민C는 쉽게 파괴되지 않아 조리해 해도 영양소가 파괴가 되지 않는다. 겉이 매끄럽기 때문에 물에 살짝 씻어주어도 불순물이 제거된다. 세로로 갈라 꼭지부분에 물러있는 씨를 없애 준다.

양상추

양상추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등 사람에게 유익한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흐르는 물에 한 장씩 씻어준 뒤 툇툇털어 물기를 없애준다. 칼로 자르면 잘린 면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손으로 뜯어 얼음물에 담가두었다 사용하면 아삭한 맛을 더욱 느낄 수 있다.

고추

고추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 좋은 채소이다. 망에 넣고 망을 잘 비비면서 닦아주면 불순물이 말끔이 닦인다. 그리고 칼로 썰어 물에 담가 씨앗을 제거한 뒤 각종 요리에 활용하면 된다.

가지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알칼로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물에 씻기전 소금으로 문질러주면 가지고유의 색상이 한결 선명해진다. 가지를 자른 뒤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금물에 담가 잠시 등으로 눌러주면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친숙한 실내식물

스킨답서스 곰팡이 제거법

스킨답서스 잎에 검고 작은 반점들이 생겼을 때 이것은 벌레가 아니고 일종의 점균류의 곰팡이이다. 검은 점을 손톱으로 살짝 누르면 툇툇하고 깨지면서 하얀 액이 나올 것이다. 곰팡이인 점균이 포자낭을 형성한 것이다. 병균이 잎에 붙어서 양분을 흡수하며 생명을 유지하므로 형견에 물이나 우유를 묻혀 닦아 주면 제거된다.



GARDEN & BOOK

가든앤가든 GARDEN & GARDEN

저자 : 김봉찬, 김상윤, 김용욱, 박영권, 안계동, 이성현, 이재연, 이홍선, 최윤석



가든앤가든(GARDEN & GARDEN)은 조경가와 정원 디자이너가 설계한 주택정원과 오피스정원 30선을 모은 정원 작품집이다. 특히 각 정원을 디자인한 설계자의 글을 통해 각 정원의 특징과 주요 공간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고, 정원 조성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정원 설계 및 시공 팁(TIP)도 얻을 수 있다. 덩으로, 하나의 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조경가와 정원 디자이너가 설계한 주택정원과 오피스정원 30선을 모은 정원 작품집이다. 정원 설계 및 시공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사진과 도면 위주로 편집하였다. 규모가 다른 여러 유형의 주택 정원뿐만 아니라 옥상정원, 실내정원 사례도 담겨 있어, 원하는 스타일의 정원 사례를 두루 접할 수 있다. 특히 각 정원을 디자인한 설계자의 글을 통해 각 정원의 특징과 주요 공간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고, 정원 조성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정원 설계 및 시공 팁(tip)도 얻을 수 있다. 덩으로, 하나의 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엿볼 수 있다. '정원이 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나침반이자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한편, 이 정원 작품집은 『아름다운 정원』(1987년), 『아름다운 주택정원』(1993년), 『아름다운 주택정원 개정판』(1996년), 『주택정원: 한국조경작품총서』(2001년), 『주택정원 개정판』(2007년)의 뒤를 잇는 결과물로, 월간 환경과조경 편집부는 당대의 좋은 정원 사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다양한 정원 사례의 공유가 또 다른 좋은 정원이 탄생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을 때문이다.

식물수집가

저자 : 어반복스콘텐츠랩

조금 서툴더라도, 느리더라도 상관없다. 그저 즐기면 하면 되니까. 도시인에게 제안하는 새로운 취미, 식물 수집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약속 없는 주말엔 리모컨만 만지작거리지만, '일'과 '공부' 이외에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잘 모르지만, 더 이상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것이 지겨운 도시인이려면 지금 당장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자. - 프롤로그 (p. 5)

《식물수집가》는 도시의 삶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어반라이프]라는 잡지를 통해 세련된 감성을 전해온 콘텐츠 컴퍼니 '어반복스'의 프로젝트 팀인 어반복스콘텐츠팀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현대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식물을 늘 곁에 두고 애정을 쏟는 '식물수집가' 13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감각적인 사진을 통해 계절에 상관없이 식물의 싱그러움을 전달하고 있으며 테라리엄이나 드라이플라워 등 실생활에서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책의 실용성과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하략)



저자소개

저자 어반복스콘텐츠랩은 세련된 감각과 취향을 가진 도시인을 위한 이야기를 만드는 콘텐츠 컴퍼니 '어반복스'의 프로젝트 팀. 도시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URBAN'과 콘텐츠의 가장 기본이라 여겨지는 'BOOK'의 조합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감성이 공존하는 진심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미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서준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경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관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게그들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평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충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립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힐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nlife.com

Nice to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종자 100^선



유럽 직수입 다양한 고급품종!

다년초, 1,2년초, 허브, 덩굴식물 등 다양한 종자를 선보입니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삼리로 924번길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